

SIMA

문학매거진 시마
25호, 2025 겨울



정가:14,000원

SIMA
초대석

김광균 : 이미지의 시인, 그 고요한 생의 풍경

겨울 초대시 : 김정미 변선우 정성원



© 2025 파란하늘

파란하늘

이미지의 시인, 그 고요한 생의 풍경

- 김광균 시인을 기억하다



젊은 시절의 김광균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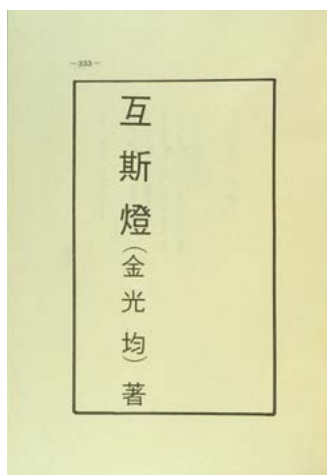
1914년 1월 19일 겨울, 경기도 개성 송도면 지파리의 골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김광균(金光均). 훗날 그는 한국 현대시의 초창기를 빛낸 ‘이미지의 시인’으로 불리게 된다.

그 시작은 평범했다. 개성의 맑은 공기와 고즈넉한 골목, 그리고 서늘한 바람 속에서 그는 사유하는 소년으로 자라났다.

송도상업학교(훗날 개성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미 언어의 빛깔에 예민했다. 당시 조선의 문단은 전통적 서정과 새로운 감각이 부딪히던 시기였다. 김광균은 그 틈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 김광균은 13살에 작품 「가신 누님」으로 등단했으며 중외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 등에 시편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했다. 대표적인 초기 발표작으로는 「가신 누님」 「옛생각」 「병」 등이 있다.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모

더니즘적 이미지와 세련된 언어 사용으로 주목받았다. 1935년 무렵부터 「외인촌」 「오후의 구도」 「창백한 산보」 등 중요한 작품들을 발표했고, 1936년에는 서정주·오장환 등과 함께 동인지 활동(시인부락 등)에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시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섬세했다. 빛과 그림자, 도시의 풍경, 인간의 고독이 서로 얹히며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는 사물의 표면을 묘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시간의 냄새와 정서를 포착했다. 그래서 그의 시집 『와사동』(1939)을 펼치면, 독자는 낡은 거리의 가스등 불빛 사이로 흩어지는 인간의 쓸쓸한 그림자를 만나게 된다. 이 시집에는 초기 대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회화적 이미지와 모더니즘적 감수성이 드러난다.



김광균 시인의 첫시집 『와사등(瓦斯燈)』
(1939, 사진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해방 이후에도 김광균의 시적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기항지』(1947) 등을 통해 전쟁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인간의 내면을 탐색했다. 눈앞의 현실보다 그 뒤편의 정적(靜寂)을 더 사랑했던 시인 — 그것이 바로 김광균이었다.

김광균의 작품 세계

김광균의 시는 이미지 중심의 언어와 서정적 감성이 결합된 독특한 스타일로 특징지어진다. 그의 시는 음악적·회화적 이미지, 도시와 인간의 감각을 세련되게 포착하는 특징이 있고 그의 언어는 소란한 세상을 조용히 바라보는 창과 같았다. 그는 도시의 풍경과 자연의 이미지를 섬세하게 묘사하며, 이를 통해 인간 내면의 감정을 탐구했다. 그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빛’, ‘그림자’, ‘바람’ 등의 이미지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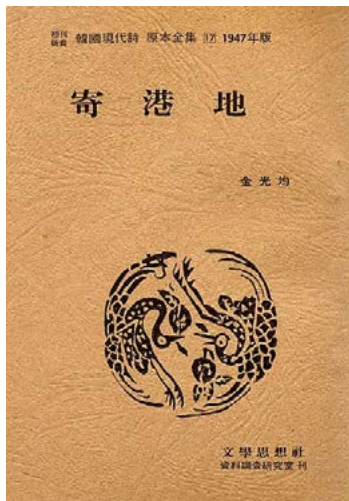
대표작 「추일서정」에서는 가을 풍경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과 애수를 아름답게 그려냈다. 이 작품은 계절적 변화와 인간의 정서적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섬세하게 표현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

다. 또한 「와사등」에서는 도시의 밤 풍경을 통해 현대인의 소외와 불안을 묘사했으며, 이는 당시 한국 사회가 경험하던 격변과 혼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광균의 시는 단순히 개인적 감정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시대적 아픔과 사회적 현실을 예리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는 민족적 고통과 개인적 고뇌를 시로 승화시키며, 문학이 지닌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추일서정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도론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鐵柵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울로 황량荒涼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帳幕 저 쪽에
고독한 반원半圓을 긋고 잠기어 간다.



김광균 시인의 두 번째 시집 『기항지(寄港地)』(1947)



김광균 시인의 세 번째 시집 『황혼가(黃昏歌)』(1957)

瓦斯燈와사등

차단_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信號신호나.

긴_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高層고층 창백한 墓石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夜景야경 무성한 雜草잡초인양 형클어진채
思念사념 병어리되어 입을 다물다.

皮膚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空虛공허한 群衆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悲哀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_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를 어떻게 가라는 슬픈 信號신호기
차단_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1978년 권역서재(權域書齋) 본,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의 음을 달았음.

문학사적 의미

김광균은 한국 현대시에서 이미지즘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선구자였다. 그의 시는 전통적인 서정시의 틀을 벗어나 현대적 감각과 도시적 정서를 담아내며, 한국 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언어의 미학적 가능성을 탐구하며, 시를 통해 독자들에게 강렬한 이미지와 깊은 정서를 전달했다.

그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한국 문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김광균은 단순히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이 아니라,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학적 유산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김광균이 문학만을 좇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김광균은 1952년 동생이 사망하자 동생의 사업을 맡아 경영하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시 활동보다 사업 쪽으로 전념하게 된다. 한국전쟁 시기여서 매우 어려운 사회 환경이었지만 그는 건설실업주식회사를 잘 운영하였고 피난지(부산)에서도 사무실을 열고 사업을 지속했다. 그는 무역협회 부회장, 국제상사중재위원회 한국위원회 감사, 한일경제협력특별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광균 시인과 김선희 여사(handmk.com 제공)

시인으로서의 감수성과 상업고등학교 졸업생답게
실업가로서의 실용정신, 그 두 세계는 그에게 모순이 아
니라 균형이었다.

1980년대에 다시 문단에 복귀하여 시집을 출간하
기도 했다. 1993년, 서울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시는
여전히 독자들 곁에서 조용히 빛난다. 김광균의 시는 화
려한 언어로 외치는 시가 아니다. 대신 사물의 표면에
고요히 내려앉은 빛을 포착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고독
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드러낸다.

雪夜 설야

어느 머언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흘날리느뇨.

처마끝에 호롱불 여위어 가며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 눈이 내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머언곳에 女人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진 追憶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追悔추회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호올로 차단한 衣裳의상을 하고
흰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내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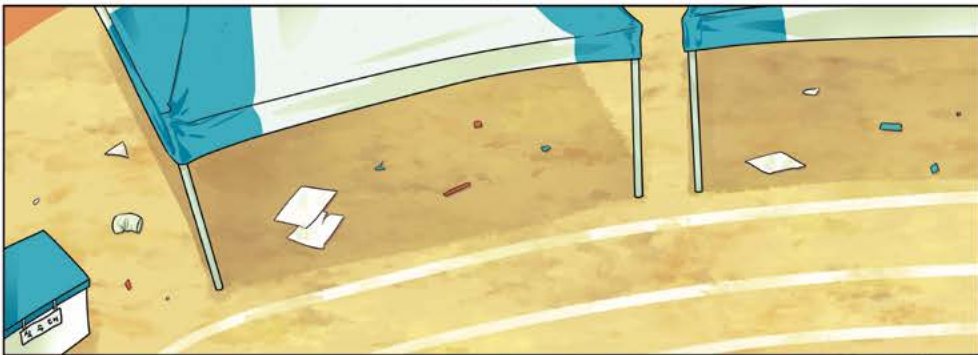
해화동 대학로에 있는 시비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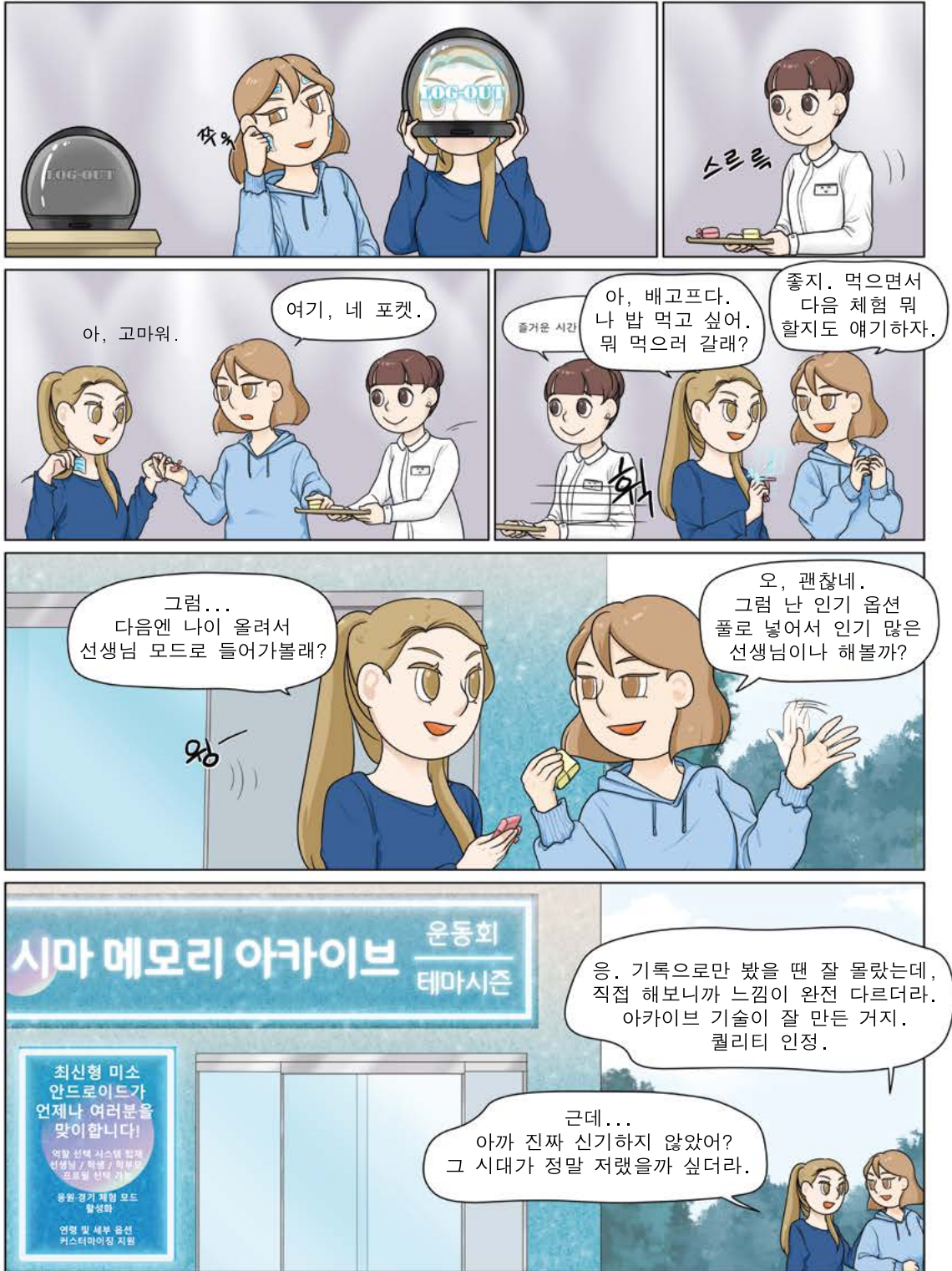
그의 대표작 「설야(雪夜)」에서처럼 번쩍이는 명성보
다는 사라져가는 시간의 질감을 더 사랑했던 시인. 그래
서 김광균의 생은 조용하지만 오래도록 남는다.

그의 시는 지금도 우리 마음의 ‘와사등’ 아래서 은은
히 타오르고 있다.

#9 시마 메모리 아카이브

글 · 그림 : 전솔이





시마 메모리 아카이브: 세션 종료.
현실 복귀를 확인했습니다.



찐빵론 / 김미희

찐빵을 만들려면
 손에 달라붙는 반죽을 잘 떼어내야 한다
 나는 마른 손을 마른 가루로 하얗게 입혔다

 자꾸 속이 터져 나오는데요

 터지는 것은 감싸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야
 넘치거나 부족해서지

 숨만큼만 버티라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땐
 물 위로 올라와 숨을 고르라던 언니의 하얀 얼굴이 부풀어 올랐다

 생각이 자꾸 새어 나온다

 그리움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다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미며 사는지 궁금해졌다

 반죽은 손 하나로 주무를 수 있어도
 빛는 것은 하나를 떼 손으로는 할 수 없다

 너를 떼어내고
 나는 마른 손을 비비며 마른침 삼키는 버릇이 생겼다

 똑같이 잘라 낸 반죽에서 나오는 다른 모양의 찐빵들
 마음 생김새처럼 찐빵도 만들어지는 걸까

 오래된 손이라도 처음 빛는 손도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속은 속없이 터져 나오고

 굳은 생각도 가끔 한쪽으로 기울고
 나는 가끔 어제 걸던 길 위에서 길을 잃는다

 손끝에 시선을 두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마음을
 떼어내는 손과 다독이는 손
 끝이 좋은 사람의 마음은 모두 하얗고 둥글까

 길을 잃는 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훈기 흐르는 찐빵을 몇 개나 품고 있을까

 붉은 앙꼬를 감추는 일로 하루를 보냈다



김미희

<미주문학> 등단. 시집 『눈물을 수선하다』
 (2016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자오선을 지
 날 때는 몸살을 앓는다』 <편운문학상> <윤동
 주서시해외작가상> <성호문학상> 본상 수상.
 <KTN> 신문에 '김미희 시인의 영혼을 위한 세
 탁소'를 연재 중, 연극배우로도 활동 중이며
 <한술문학> 대표이다.



김선하

사진작가, 화가, 칼럼니스트. 개인사진전 2회,
 <달라스 한인신문>에 사진 칼럼 '사람이 있는
 풍경'과 '삶의 파노라마'를 10년째 연재 중.
 이민자의 희로애락을 사진과 글로 담는 휴머니
 스트

사랑을 잃고 길을 떠나는 당신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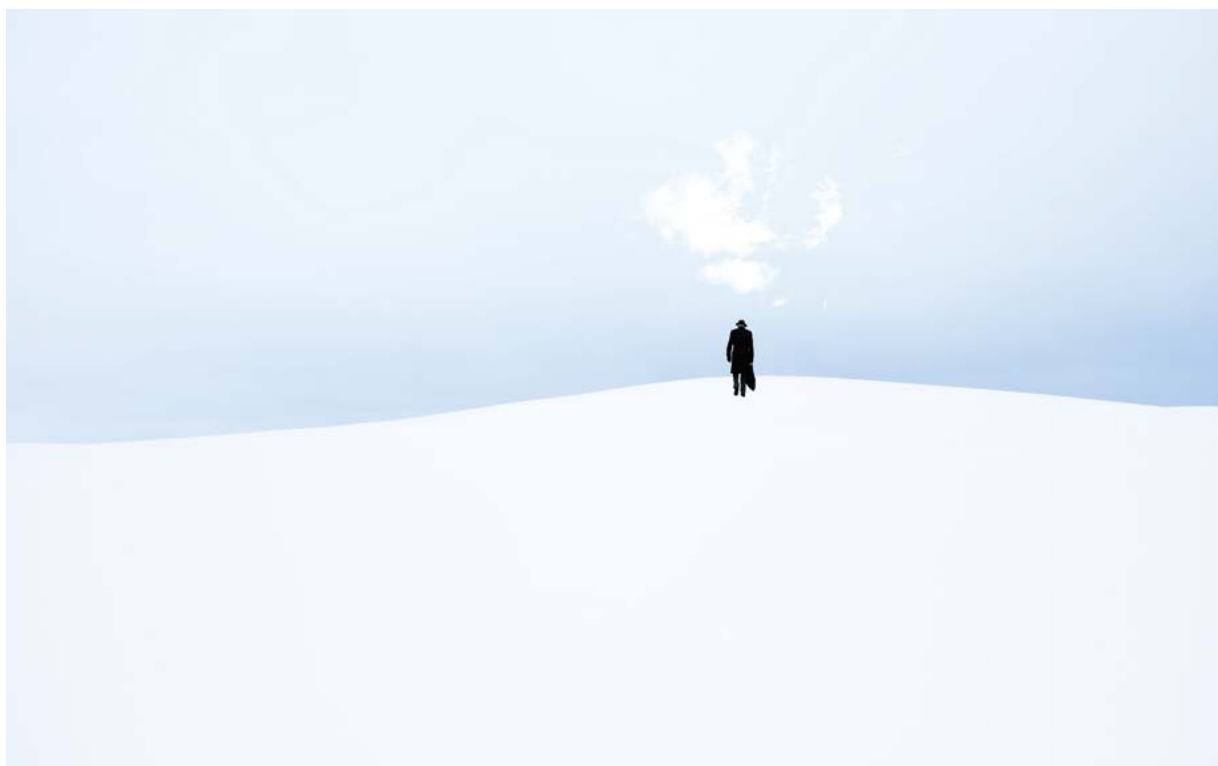
세상은 사랑으로 인해 어지럽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목숨 건 지고지순의 사랑부터, 온몸을 던져 사랑하고 이별하는 패망 전 식의 어그러진 사랑도 있다. 함께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당연지사다 보니 세상엔 사랑으로 인한 상처가 도처에 널려 있다. 우리는 사랑을 잃고 나면 도리 없이 ‘함께 공유’ 하던 일상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한 명의 서사도 절절한데 둘이 나눈 내면의 은밀한

역사는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덜 아프고 모두가 다행인 출구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사랑을 잃게 되면 막연한 떠남을 생각하게 된다. 익숙한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어지고, 함께 걸었던 거리마다 그 공유의 흔적이 아른거린다.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상실의 상처는 계속 덧나고, 기억

세상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떠나는 용기, 여행이 당신을 치유한다





사랑에서 실패한 당신은 질적 시간으로의 여행이 가능하다

은 속된 말로 이불 킅을 부를 만큼 선명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지금은 떠나야 할 때라는 것을.

이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다. ‘호모 비아토르’, 길 위의 존재라는 인간 본성이 깨어나는 순간이다. 상처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원시적 이동 충동을 자극한다.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맸던 조상들의 DNA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사랑이 떠나는 건 기존의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이다. 함께 꿈꿨던 미래, 서로에게 부여했던 의미, 이 모든 것이 한순간 공허로 바뀐다. 세계가 바뀌면 존재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물리

적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행은 이런 실존적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순례를 떠났다. 인류의 역사가 떠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잠재한 DNA의 영향으로 하다못해 집 앞의 공원에라도 나가 있어야 한다. 세계와 호흡하며 걸음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은 인류 공통의 생존 방법이다.

여행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시간이다. 일상의 크로노스(기계적 시간)에서 벗어나 카이로스(질적 시간)의 세계로 들어간다. 상처받은 마음에게 이런 시간의 변화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별 후 일상은 시간이



여행지에서의 모든 현상은 치유의 과정이다

멈춘 듯하다. 잠 못 이루는 밤은 매일 찾아오고, 눈 뜨면 같은 길을 걸어 일터로 나서고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사람은 떠났지만 시간과 공간은 변화가 없다. 상처의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행지에서는 다르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배가 고프면 먹고, 지치면 쉰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면서 우리는 베르그송의 '지속(durée)'의 시간을 되찾는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서로 스며드는 생동하는 시간 말이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당신은 문득 깨닫는다. 시간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움직이고, 계절은 변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여행의 시간은 또한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하다. 기다림은 여행에서 묘한 여유로움이 된다. 기다림이야말로

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달콤한 경험이다. 상처 받은 마음에게 기다림은 치유의 시간이다.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특별하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모르고, 당신이 누구였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오직 지금 여기의 당신만을 본다. 이런 만남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무심코 건넌 예기치 않았던 미소나, 적당한 거리에서 관찰하게 되는 치열한 삶의 시간까지, 여행지에서의 감정은 이전의 감정과는 다르다. 한층 여유로워진 우리의 시선에선 작은 친절과 힘듦마저도 삶의 활력으로 느껴진다. 여행지에서의 작은 만남이 소중한 이유는 조건 없는 선의를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랑이 끝나면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사랑은 늘 떠나고, 진력한 희생은 배반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만나는 낯선 이들의 순수한 친절은 이런 냉소를 녹인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상처받은 마음에게 완전한 타인은 치유의 거울이 된다. 삶을 버텨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웃을 수 있다는 것, 사랑은 끝나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 배운다.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당신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갠지스 강의 일출에서 가슴 뛰는 새로운 시작을 만날지도 모른다. 아무런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 백치의 공간에서 당신은 새로운 자아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잃은 상처 받은 사람이 아니라, 무해한 공간 앞에 선 작은 존재일 뿐이다.

이런 경험에서 우리는 ‘관점의 전환’을 얻는다. 개인적 고통이 우주적 맥락에서는 얼마나 작은 것인지, 동시에 그 고통을 견뎌내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깨닫는다. 여행은 기존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사랑이 끝나면서 무너진 존재가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구축할 기회를 얻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상실이 가져다준 자유가 당신에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

여행은 언젠가 끝난다. 하지만 돌아온 당신은 더 이상 떠날 때의 그 사람이 아니다. T.S. 엘리엇의 말처럼 “출발점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그곳을 알게 된” 상태다.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당신은 깨닫는다. 이곳이 여전히 그 사람과의 기억으로 가득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이 당신을 짓누르지 않는다는 것을. 여행에서 얻은 새로운 관점이 과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게 해준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여행을 통해 발견한 다른 자아의 측면들이 상처를 상대화시켜준다.

사랑을 잃고 떠난 여행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것이 반드시 연인에 대한 사랑일

필요는 없다. 세상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사랑 말이다.

여행은 마음을 열어 준다. 닫혀 있던 감정의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팠던 기억들이 점차 감사한 경험으로 재해석된다. 아팠던 사랑이 있었기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상처가 있었기에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랑을 잃고 여행을 결심한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지금 느끼는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행은 그 변화를 도와줄 것이다.

길 위에서 당신은 새로운 시간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왔을 때, 당신은 이별 이전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호모 비아토르로서의 당신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상처는 출발점일 뿐, 목적지가 아니다. 길 위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치유이고, 성장이며,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이다. 이제 당신이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이다.



글 · 사진 조성찬

관광학 박사
전 가톨릭 관동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푸른 바퀴

얼마나 오래 세워져 있었을까
 낡은 트럭 바퀴에 담쟁이넝쿨이 달라붙어 있다

구불구불한 지명을 달리던
 바퀴의 운행 방식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꺼진 엔진 어딘가에는 부르릉거렸던 한때의 시동이 남아 있고
 종종 트럭 옆자리에 태웠던 어둠은
 보름달을 환하게 갈아 끼웠다
 달빛 아래 광폭의 속도를 버리고
 초록의 속도를 익히고 있다

설득에 든 녹슨 볼트들의 틈에선 붉은 꽃이 피었다

번호판마저 사라진 45톤 여름의 적재함엔 이제 막 기승을 부리던 무
 더위가 만차로 실려 있을 뿐이지만 여름의 구석진 곳 어디쯤엔 점화를
 기다리는 기름 몇 방울쯤은 여전히 잠복 중일 것이다 트럭 계기판엔 먼
 우주의 어느 지점까지 다녀온 바퀴자국이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모르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연습할 거야. 몇 광년을 지나 어느 두근거
 리는 별에 도착하는 일을 꿈 꿀 데야. 연착되거나 갇혀 있던 바퀴 속 바
 람들은 느슨해지다 못해 뭉땅 달아나야 해. 폭 꺼진 바람만이 푸른 속도
 에 붙잡힌 흡착의 제동을 설득해야만 해

바퀴를 굴려 세상을 실어 나르지 않은 힘,
 몇 광년의 시간을 달릴 바퀴엔
 공기의 이파리들이 엉겨 붙고 있다

틈 혹은 금

자주 빠진 머리카락을 발견합니다
그건, 들끓는 내 몸에 실금이 가고 있거나
틈이 벌어진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이나 거울 앞에서
예후_{豫後}나 선험_{先驗}의 역할을
도맡아 하는 틈과 금이니까요

머뭇거렸던 일이라면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만
틈과 금 앞에서
야반도주라는 말을 할 뻔했습니다

맞대어 보지 않아도
내게 일어날 일은
다 내가 갖고 있던 일들일 겁니다
또 내게 일어났던 일들도
나를 떠나려 했던 일들일 겁니다

몰래 나를 굴려서 나를 만들 듯
신맛이 풋과일의 일이듯
떨어진 모과가 모과나무의 일이듯
셀 수 없는 머리카락으로 뭉쳐진 일은 나의 것입니다

잠깐씩 따뜻해지기 위해
틈과 금을 하나씩 빼서
골칫거리들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만드는 중입니다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야겠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금이 잘 가는 사람
가벼워진 새들처럼
조금 흥가분해져야겠습니다

김정미



2015년 〈시와 소금〉 시 부문 등단
2024년 〈영주신문〉, 2025년 〈국제신문〉 신춘문에 시 부문 당선
시집 『오베르 밀밭의 귀』 『그 슬픔을 어떻게 모른 채해』
산문집 『비빔밥과 모차르트』 『꿀묵, 게으른 산책자』
제15회 춘천문학상 수상

지족

신께 줄을 건다
 신의 사지를 조종하여 직선 위에 올려 드린다
 오들거리시는 신
 신께서 위태롭게 전진하신다
 하나 둘, 하나 둘
 사람들 손가락질을 시작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지런한 사람들
 (우지끈)
 신께서 직선을 부풀리려
 정신을 집중하신다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는지
 그냥 이동하신다
 뚜벅뚜벅, 저벅저벅
 신께서 식은땀을 흘리신다
 나는 해를 지우고
 펼쳐이는 천을 그려 드린다
 따라서 어둡게 흔들리는 신의 머리칼
 나는 여전히 조종하여
 신을 직선의 끝으로 인도한다
 거기에는 한 칸의 서랍이 있고
 서랍을 지키는 영원한 수탉이 있다
 이윽고 신께서 당도하여
 서랍에 들어가시면
 나는 부드럽게 서랍을 잠근다
 수탉은 달힌 서랍에 박치기하고
 신은 근본 없는 실체가 될 수 있다

엑스

더듬이 다발
 목소리 다발
 제정신 다발
 더이상 끊어낼 수 없는 것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도끼를 숨길 필요가 없다
 이제 나무를 심고 싶다
 납작복숭아나무
 블랙사파이어포도나무
 해파리나무... 저만치서
 도끼의 눈이 새파랗게 번뜩인다
 달이 새빨갭게 타오른다
 실신의 끝은 언제나 바닷가
 말하지 않아도
 밀려왔다 밀려가는 바닷물
 바다 한가운데
 너무 큰 나무 한 그루
 실체 없는 새들의 지저귀
 나는 바닷가에 앉아
 어두운 모래를 움켜쥔다
 알알이
 나는 자꾸만 많아진다
 많은 나는 저마다
 도끼를 쥐고 있다
 이윽고 바위를 내리치면
 무너지는 도끼의 숨
 나는 바위 뒤에 숨고만 싶다
 그럴수록 바위는 숭고해진다

허방에서 펄럭이는 커튼
 누군가 짠 정교한 우연
 더이상 꿰어낼 수 없는 것
 비틀어 질 수 없는 것
 사모하는 사람들
 더이상
 실신해 버린다
 돌멩이 하나

변선우

1993년 대전에서 태어났고 성장
 201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
 시집 『비세계』



반복하는 꿈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

악몽과 춘몽

덧없음과 헛된 바람

그 애매하고 무심상한 간극에서

의미 없는 장면들이 어지럽게 모였다가 흩어지곤 했다

오늘은 전철 안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놓쳤고

안 온 사람과 도착하지 못한 사람을 두고 어릴 적 살던 마을 한적한 골
목으로

꿈은 장면을 바꾸었다

우리는 걷고 있었고

으스스한 골목은 어제 보았던 듯 익숙한데

얼굴에 그림자를 만드는 걸 가까이에서 보면서

우리는 다시 헤어지고 있었다

약속을 했었던가요?

그만하자

집단 독백은 겹연찍었고

추억할 무언갈 찾아야 하는 밤은 심란했다

좀 더 단정하게 말하고 냉정하게 돌아설 일이었을까

어둠은 잘게 쪼개지고 일렁이면서 물음이 반복되고
그런 꿈을 기억하지 못한 채 짙은 쪽으로부터 밤은 잠식당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거나 전철을 기다리다가 비를 맞는 저녁의 일처럼
느닷없는 거기에서

나는 오래 서 있었고
너는 일찍 등을 돌렸던 것 같다

슬픔은 수시로 박자를 이루며 몸을 두드려댔다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젖은 꿈을 펼쳤다 방관자처럼 슬픔을 관람하는 사람들과 목덜미를
훑어내리는 차가운 기운들, 꿈들이 무질서하게 사라지는 꿈

화들짝 어젯밤을 복기한다

모든 게 결국 나였구나

성운에 속아 별 이야기를 꺼내다가

하늘이 뚫렸다
숨을 쉴 때마다 흥부로 날아드는 파랑새
보았는데 보이지 않은 파랑새는 희망도 뒤통도 아니었다

구름이 흩어진다

앉은 자리에서 떠다니는 별 냄새
별자리에 묶인 별들이 꼬리가 아프다고 한다
구름이 심장 가까이를 훑고 지난다
어떤 구름은 환부가 된다

내게 허용된 하늘은 얼마큼일까?

장미가 만발한 담벼락은 새가 앉기엔 가시가 많아
릴케의 알 수 없는 죽음에 책장을 넘기는 생기로운 당신

죽은 얼굴이 후드득 떨어진다

지금이야 가혹하다며 당신은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면 따스한 울음이 피어 있는 곳으로
울음은 울음이 가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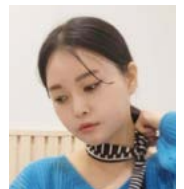
구름은 오래된 안부를 전하고
당신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
꼬리를 물고 별은 별자리가 되거나 유성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
그러면 구름은 다정하게 머리카락을 넘겨주지

멀리 떠나온 꿈에선
내가 불러보는 이름으로 채워지는 따뜻한 당신이 있다

장미가 5월을 안아보는 오후
당신을 쓰다듬는 간결한 구름
별 이야기를 꺼내다가 꽃무덤에 갇히는 나도 보이고

정성원

통영 출생. 2020년 〈시산맥〉 등단
제15회 최치원신인문학상 수상



무리얼 루카이지 :

경험을 들이쉬고, 시를 내쉬기



무리얼 루카이지
(Muriel Rukeyser, 1913-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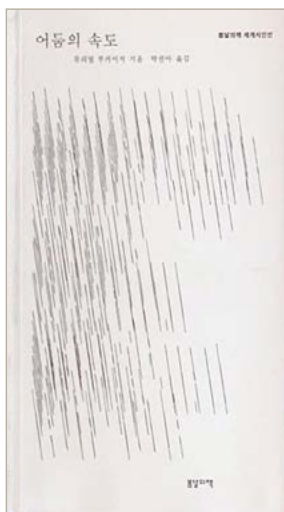
무리얼 루카이지(Muriel Rukeyser, 1913~1980)는 1913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1935년에 『비행 이론Theory of Flight』이라는 제목의 첫 시집을 출판해 ‘예일 젊은 시인상’을 수상한 이후 1980년에 사망할 때까지 근 50년 동안 미국 모더니즘 문학과 제2 물결 페미니즘의 중심에 있었으며 앨리스 워커Alice Walker, 샤론 올즈Sharon Olds, 에이드리언 리치Adrienne Rich 등의 젊은 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첫 시집 외에도 『지중해』, 『선회하는 바람』, 『웨이크 아일랜드』, 『보이는 야수』, 『오르페우스』, 『아우터 뱅크스』, 『어둠의 속도』, 『문들』 등 많은 시집과 시선집, 희곡 작품, 동화집, 전기, 번역서 등을 썼다. 첫 시집의 제목 “비행 이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는 과학 기술 관련 지식과 정보를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시와 연결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과학과 역사, 과거와 현재, 공황에서 반전 운동에 이르기까지 자기 삶이 마주친 역사와 사건의 수많은 ‘현장’을 새로운 시적 형식으로 그려냈다. 가령 1931년 웨스트 버지니아주 지역의 한 터널 건설 과정에서 규폐증으로 수백 명의 광산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 중의 하나라 불리는 ‘혹스 네스트 터널 재난 사고Hawks Nest Tunnel Disaster’를 다룬 장편 서사시 「사자의 책The Book of the Dead」에서 루카이지는 생존자들의 인터뷰, 법정의 기록물들, 의학 전문용어, 해당 회사의 주식 보고서 외 건조하기 짝이 없는 보도 자료를 등에 시에 끌어들이는 독특한 기법으로 ‘다큐멘터리 시학

Documentary poetics’라는 새로운 형식을 개발하였다. 루카이지는 다큐적 증거 자료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매우 서정적인 언어로 직조함으로써 새롭고도 강력한 형식의 언어를 선보였다.

무리얼 루카이지의 문학적 실험이 동시대 다른 모더니스트들의 실험과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모더니즘의 악명 높은 난해성을 가중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되었다는 사실이다. 루카이지의 다른 시들 역시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서정적인 것과 다큐멘터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 등, 이질적인 것들의 은유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지만, 그 비유의 넓은 폭에 비해 가독성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시를 쓸 때 루카이지는 대체로 매우 알기 쉬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외국인이라도 웬만큼 영어를 안다면 굳이 사전을 찾느라 헤맬 필요 없이 줄줄이 읽어들 수 있을 만큼 가독성이 높다. 그도 그럴 것이, 루카이지의 관심사는 주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았다. 그것

은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소재’이었므로 당연히 가독성이 높은 언어로 전달되어야 했다. 루카이저는 관념이나 초월의 세계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있는 세상 속으로 자신의 몸과 언어를 밀어 넣었고 그 안에서 시를 발굴했다.

그녀는 인종, 성, 계급, 전쟁 등, 민감한 사회·정치적 이슈들을 시로 전달하는 일종의 ‘대변인spokeman’ 역할을 하는 시인이었다는 점에서 시대의 ‘대변인-시인spokespoet’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 시인인 윌리엄 로즈 베넷W.R. Benét은 루카이저의 첫 시집 『비행 이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녀는 정치적으로 급진적이었지만 선동가가 아니라 시인으로서 글을 쓴다. 당신이 이 시집을 손에 잡을 때 당신은 살아있는 사물을 느낄 것이다.”



무리얼 루카이저의 『어둠의 속도』
(봄날의책, 2020.07)

누구라도 클리토리스를 경멸하는 자는 페니스를 경멸한다

누구라도 페니스를 경멸하는 자는 여자의 성기를 경멸한다

누구라도 여자의 성기를 경멸하는 자는 아이의 생명을 경멸한다.

부활의 음악, 침묵, 그리고 파도

...(중략)...

삶이라는 공표자

당신에게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아이를 갖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사생아 같은 엄마인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다

태어나는 것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태어나는 모든 방식에

나름 각각의 기쁨이 있다고.

...(중략)...

시간이 그 안으로 들어온다

그것을 말하라. 그것을 말하라.

우주는 원자들이 아니라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둠의 속도」 부분(오민석 역)

이 시가 표제작으로 들어 있는 시집 『어둠의 속도』가 출판된 1968년은 미국에서 베트남전 반대 운동, 각종 인권 운동, 제2 물결 페미니즘 운동 등이 최고조에 이르렀

던 격동의 시기였다. 이 시집은 그 시대에 걸맞게 매우 다양한 주제들을 건드리고 있는데, 가령 모성과 여성의 몸, 정치적인 참여와 전쟁, 자아와 몸, 내면세계와 외적 현실, 개인과 사회 등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들 사이에서 통일적 연관성을 찾으려는 루카이지의 노력이 돋보인다.

위 작품의 여는 부분은 여성의 몸과 성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경멸이 사실은 그것을 탐한 남성의 몸에 대한 경멸일뿐더러 바로 그 여성의 몸에서 나온 아이에 대한 경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모든 존재에 대한 경멸이라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이어지는 “부활의 음악, 침묵, 그리고 파도”라는 행은 표준 문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쉽표마다 한 칸씩 더 띄어서 일시적으로 호흡을 멈추게 함pause으로써 앞에 나온 자신의 주장을 천천히 음미하며 되새기도록 하고 있다.

중간 연에서 루카이지는 자신을 “사생아 같은 엄마 bastard mother”라고 부르는데, 이는 루카이지가 급진적 성향의 ‘퀴어 양성애 성향의 싱글 맘’이었다는 추정(본인은 한번도 자신의 성적 취향에 대하여 밝힌 적이 없다)에 의존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루카이지는 1945년에 결혼했으나 불과 6주 만에 파혼했으며 그로부터 2년 후인 1947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부친이 누구인지 평생 밝히지 않았다. 중간 연에서 태어나는 것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떻게 태어나도 모두 나쁜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주장은 아마도 루카이지 본인의 이런 개인사에서 나온 주장일 확률이 높다. 루카이지의 시들 중에서 매우 자주 인용되는 대목인 “우주는 원자들이 아니라/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문장은 그녀가 왜 세상의 크고 작은 무수한 사건과 사연(이야기)들에 관심이 있었으며 마치 대변인처럼 평생 그것들을 시로 읊었는지를 잘 알게 해준다.

“처음에 내가 노동하는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충동을 가졌을 때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요.

나는 단지
노동자들의 삶이 아름답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중략)...

“사실,
나는 믿어요

양성애가
예술적 생산엔
거의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이지요.
여하튼 내 안의 남성성의 기운이

내 작업을
도와주었지요.”

...(중략)...

전쟁 사이에 갇혀, 나는 쳐다보네
그 모든 이들을
이 모든 사람들
방직공들을,
혁명의 광장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을
바라보네
그들 모두를
죽음을, 아이들을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을
끓주림을
그 거리를
어두운 강 위를, 떠다니는
아이 결의 시체를



...(중략)...

한 여자가 자신의 삶에 관한 진실을 말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세상이 터져버릴 것이다

...(중략)...

죽음의 말은

돌과의 싸움을 불러

시간의 비탄과 씨름하고

그 길로

예술을 청동보다 더 단단하게 만드네.

—「케테 콜비츠Käthe Kollwitz」부분(오민석 역)

케테 콜비츠는 독일의 화가, 판화가이자 조각가로 1차 세계 대전에선 아들을 잃고 2차 세계 대전에선 손자를 잃었다. 이 때문에 콜비츠는 엄청난 충격과 상실의 슬픔에 시달렸으며, 이 경험은 그녀를 평생 절대적인 평

화주의자로 만들었다. 그녀의 전쟁 연작들과 대표적인 조각 작품 중의 하나인 「슬퍼하는 부모」는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콜비츠는 반전 평화주의자인 동시에 또한 진보적인 예술가로서 노동자(직조공)들의 봉기를 다룬 「직조공의 봉기」 연작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녀의 「죽은 아이를 안은 여인」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는 또 다른 매우 직설적이고 강력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위 작품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형에 따라 8~9쪽에 이르는 긴 시로서 케테 콜비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그녀와의 자기 동일시를 시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평자들에 의해 자주 인용된다. 특히 “한 여자가 자신의 삶에 관한 진실을 말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세상이 터져버릴 것이다” 같은 구절은 이 시의 맥락과 무관하게 미투 운동 당시 국내의 여러 매체에 자주 인용되었다.

하루 종일 떠나기를 기다리며 나는 말을 듣네

그 시인이 감옥에 있다고, 그 시인이 곧 죽게 되었다

고

우리는 그의 말을 웃처럼 입지, 우리는 모두, 나와 내
아들은, 그의 말을 읽지.

...(중략)...

그 장관이 해방에 대하여 말하네.

“당신은 공산주의자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해방
이라는 단어.

아닙니다. 보세요—이게 그의 일기예요,

장관이 말하네.

이 일기가 그 시인의 집에서 발견되었지요.

보세요, 해방, 해방, 말끝마다 해방을 칭송하고 있잖
아요.

이 시인이 일기에서 말하잖아요, 부자들에게서 빼앗
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이
지요.

그래 맞아요, 그가 산문으로도 말하고, 희곡에서도
말하네요,

그가 시에서도 말하는데 그게 나를 그에게 붙들어 매
네요,

그게 그의 민중과 나의 민중을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묶어 주네요

낮녘과 경멸을 넘어 처음으로 말이에요.

그것은 또한 당신이 그의 집을 깨부수고 들어가 그의
원고를 훔쳤다는 거잖아요.

...(중략)...

그날들 속에서,

외로이 갇혀 있는 시인의 밤들 사이에서

어떤 강한 유아乳兒가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네.

—「문들Gates」부분(오민석 역)

이 작품은 1970년대에 한국의 김지하 시인이 민주화
운동을 빌미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루
카이지가 몸소 한국을 방문해 그의 석방 운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쓴 것이다. 단행본으로 출판된 이 시집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시는 바로 위에 인용한 표제시 「문
들Gates」이다. 이 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시인은 바로
한국의 김지하 시인이고, 장관은 루카이지가 구명 운동
과정에서 만났던 당시의 정부 관료(장관)이고, 루카이지
는 그와의 대화를 시 안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루카이지는 스페인 내란 초기에도 내란의 현장을 며
칠 동안 방문해 ‘대변인-시인’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이
처럼 그녀는 불의가 판치는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 그
것을 시적으로 고발하고 기록하는 현장의 다큐-시인
이었다. 가령 루카이지의 「어린 시절의 시Poem out of
Childhood」는 이렇게 시작된다. “경험을 들이쉬고, 시를
내쉴다Breathe-in experience, breathe-out poetry.” 그녀의 발
길은 스페인 내란을 넘어, 미국의 산업재해 현장, 베트
남 전쟁,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 시인이 갇혀 있던 감옥
같은 반인권의 현장 외에도 계급, 인종, 성적 불평등의
온갖 현장들을 두루 밟고 다녔다. 골방의 시인도 필요하
지만, 이런 현장의 시인도 필요하다.



오민석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현재 단국대학교 영미인문학과 명예교수. 1990년 월
간 〈한길문학〉 시 부문 신인상, 199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 시집 『굿모닝, 예브리원』 외, 문학평론집 『이 황량한 날의 글쓰기』 외,
대중문화 연구서 『나는 땀따라다: 송해 평전』, 『밥 딜런, 그의 나라에는 누가
사는가』, 번역서 바스코 포파 시집 『절름발이 늑대에게 경의를』, 『오 헨리 단
편선』 외 다수. 〈단국문학상〉, 〈부석 평론상〉, 〈시와경계 문학상〉, 〈시작문학
상〉, 〈편운문학상〉 등 수상.



세계가 두려워하는 작가

영어로 쓰인 문학작품 중에 3대 비극으로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 꼽힌다고 한다. 비록 ‘비극’이라는 범주적 제한이 걸리기는 했지만, 이러한 단호한 규정은 작가 허먼 멜빌의 남다른 문학사적 위상을 말해주는 사례일 것이다. 세계의 지성들도 이러한 찬사에 가담한 바 있는데 가령 영국 작가 D. H. 로렌스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멜빌은 세계가 두려워하는 작가다. 우리는 지금도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일갈했고, 미국 비평가 L. 먼포드는 “그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 가운데 하나다. 『모비딕』은 셰익스피어의 『햄릿』, 단테의 『신곡』에 맞먹는 수준의 작품이다.”라고 칭송하였다. 그만큼 세계가 두려워하는 작가 멜빌 혹은 그의 대표작 『모비딕』은 세계문학사에 찬연한 이름으로 우뚝하다.

‘남은 자’가 보여주는 종교적 심층 서사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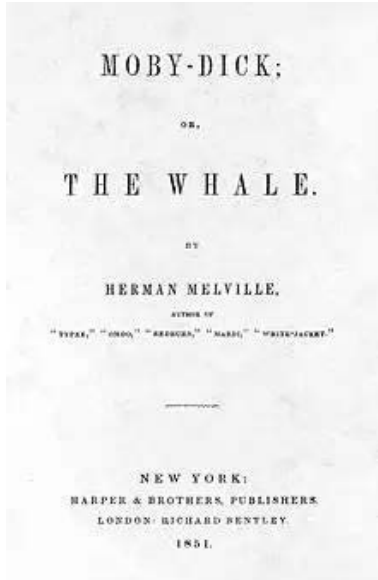


허먼 멜빌

(Herman Melville, 1819.8.1.~1891.9.28.)

멜빌의 생애와 『모비딕』

허먼 멜빌은 1819년 8월 미국 뉴욕에서 출생하였다. 네덜란드나 영국에서 이주해 온 무역상 가계(家系)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자 학업을 중단하였고 그때부터 여러 직업을 거쳤다. 가게 점원, 은행원, 농사꾼, 건설공 등을 전전하던 그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그러던 터에 스무 살이 되어 상선을 타고 바다에 처음 나서게 된다. 그러한 상선 경험을 통해 바다를 향한 동경이 형성되던 때 그는 포경선을 타고 4년 여 동안 남태평양을 누볐다. 그 시간은 멜빌을 일찌감치 『모비딕』의 작가로 예약해놓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남태



1851년 10월 18일, 미국의 소설가 허먼 멜빌이 '모비딕' (Moby-Dick)을 런던에서 '고래' (The Whale)라는 제목으로 첫 출판하였다

평양 한 섬에 유폐되어 그곳 타이피 족에게 잡혀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는데, 특별히 이 경험은 그의 작가적 생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는 포경선 생활을 그만두고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1846년 멜빌은 타이피 족과 함께 보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첫 소설 『타이피』를 펴냈다.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 작품은 오히려 영국으로 건너가 이례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기서 힘을 얻은 그는 바다 경험을 시리즈로 하여 여러 소설을 잇달아 쓰게 된다. 이후 매사추세츠 주의 한 농장에 정착한 그는 인근에 살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과 사귀게 되는데, 이미 『주홍글씨』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중진작가를 만난 멜빌은 그에게서 크나큰 영향을 입는다. 『모비딕』이 출간 직후에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도 호손은 멜빌의 작가적 역량을 끝까지 옹호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망년우(忘年友)로서의 우정을 견고하게 유지해갔다. 어쩌면 멜빌 작품 속에 거대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종교적 형이상학의 세계는 호손의 문학적 핵심이 암암리에 내면화된 실체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멜빌의 대표작 『모비딕』(1851)은 이슈마엘이라는 일인칭 화자에 의해 관찰되고 기록된 포경선 일지(日誌)이다. 선장 에이허브는 거대한 백경(白鯨)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후 복수의 일념으로 살아간다. 선장의 광기와 절대 권력, 고래와의 사투 끝에 난파되는 포경선, 모든 선원이 수장되는 서사 안에는 수많은 기독교 성경의 인용(引用)이 들어 있고, 형이상학으로부터 백과사전적 지식의 세계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개성적 문장과 스타일이 담겨 있다. 하지만 당대의 독자들은 전혀 이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 작품의 형이상학적인 면모가 재평가되면서 『모비딕』은 작가 사후에야 그 의미와 가치가 재발견되어 미국문학 최고 걸작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말하자면 백경은 절대적 자연 혹은 신, 혹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실체로 상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에이허브 선장은 인간의 집착과 오만 그리고 그로 인한 파멸을 함축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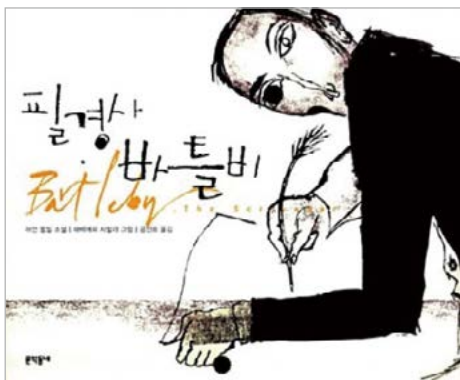
『필경사 바틀비』의 심층 서사

『모비딕』 이후 2년 만에 발표된 중편소설 『필경사 바틀비』(1853)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19세기 소설의 고전이다. ‘월가 이야기’라는 부제가 암시하듯, 미국 금융 경제의 중심 월스트리트를 배경으로 하여 당시 새롭게 움트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았다. ‘벽의 거리’라는 이름이 환기하듯 ‘월가’는 멜빌이 뉴욕에서 살았을 때를 회상할 실감 있게 접근할 수 있었던 소재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그러한 표층 서사 밑으로 어떤 심층 서사가 흐르고 있다. 그것은 ‘남은 자(the Remnants)’로서의 바틀비의 모습이다. 권력의 지침을 함축하는 명령에 대하여 주인공은 한결같이 비타협적으로 대응한다. “I would prefer not to(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라는 기이하면서도 절묘한 표현을 통해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음각해가는 필경사의 운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크나큰 감동을 던져준다.

이 소극적 항변은 물리적 투쟁과는 구별되지만 체제와 비동일화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키려는 신성한 저항적 행위로 나타난다. 그렇게 바틀비의 생애는 자본과 노동, 율법과 사랑, 삶과 죽음의 문제 등 수많은 대립 쌍을 환기해준다. 그 가운데 이 작품은 ‘필경사=작가’라는 등

식을 개입시키면 한 편의 빼어난 ‘예술가소설’이 되기도 한다. 어딘가 어두워 보이고 말이 없는 그의 모습은 ‘필경(筆耕)’이라는 말이 함축하듯, 작가의 은유적 형상으로 모자람이 없다. 관례를 벗어난 그의 명령 거부하는 작가의 특권인 자유와 독립성을 선명하게 상징한다. 결국 해고되지만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구치소에 넘겨진 바틀비는 그곳에서 벽을 마주한 채 죽음을 맞는다.

바틀비는 ‘열린 벽’인 월가에서 격리되어 ‘닫힌 벽’인 감옥을 택하여 스스로 사라져 갔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시종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형상은 청년 예수의 형상을 강렬하게 환기한다. 그리고 이 소설을 『모비딕』처럼 종교적인 심층 서사로 읽게끔 해준다. 바틀비의 이러한 저항은 권력, 자본, 합리성 같은 주류적 흐름을 향한 것이지만 율법이나 종교권력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 소설은 미국 사회를 반영한 것이자 형이상학적 심연으로 170년 시간을 건너오고 있다. 웬지 우리 시대의 위대한 거절도 이런 언어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새삼 되뇌어보는 시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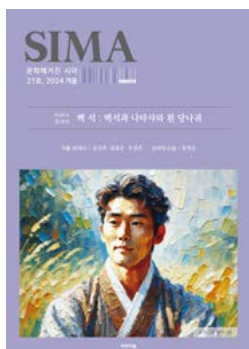
『필경사 바틀비』(문학동네, 2011.4.)



유성호

1964년 경기 여주 출생.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지은 책으로 『서정의 건축술』 『단정한 기억』 『문학으로 읽는 조용필』 등이 있음. <대산문학상> 등 수상

제4회 시마청소년작품상 시상식 현장스케치



11월 1일, ‘시의날’인 토요일 오후 5시 반,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홀에서 제4회 <시마청소년작품상> 시상식이 열렸다.

마로니에 광장에서 들리는 젊은 친구들의 버스킹 소리가 행사장 안에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이번 시상식에는 <시마동시상> 초등학교생들도 초대되었다. 제1회 심사 때 동시상 선정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선정을 계속 미루다 이번 시상부터 등수를 정하지 않고 <시마동시상>이라는 이름으로 수여하기로 하였다. <시마동시상>은 이전까지 응모하여 선정된 동시 작품 중에서 5편을 선정해서 시상했다. 심사에는 한국아동문학인회 회장을 역임한 이창건 시인과 시마 편집장인 오혜정 시인이 맡았다. 이 상은 동시에 관심이 많은 문학매거진 시마 편집진 려원 시인이 후원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마동시상>을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시마동시상

- 김도윤 인천가원초등학교 6학년 「무거운 길」
- 김준호 서울영원초등학교 6학년 「팝콘」
- 손예슬 무지개초등학교 3학년 「눈」
- 전서영 삼성현중학교 2학년 「봄의 축복」
- 황화원 군산서해초등학교 2학년 「내 옷」

<시마청소년작품상> 본심 심사는 9월 24일(수) 오전 11시, 문학매거진 시마를 발간하는 파란하늘 출판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본심 심사위원은 조창환, 서안나, 오혜정 시인이 참여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조창환 시인은 학생들의 시가 생각보다 참신하였다고 평가했다. 몇 개의 작품이 최우수상을 놓고 경쟁을 벌였으나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게 시를 전개한 정명준의 「철도역에 서서」에게 돌아갔다.

우수한 작품이 많아서 우수상을 예정보다 1명을 늘려 3명을 선정하였고 장려상으로 7명을 선정하였다.



심사 : 조창환 시인(심사위원장), 오혜정 시인, 서안나 시인

최우수상

정명준 통영고등학교 2학년 _「철도역에 서서」

우수상

이슬미 창원성민여자고등학교 3학년
_「늦가을 해바라기 지는 언덕에서」

정예은 하안북중학교 3학년 _「벽장 속 가을」

황자인 충무여자중학교 2학년 _「빗물에 젖은 편지」

장려상

박한울 _「나 어찌면 행성으로 돌아가서」

이현정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_「빈 쟁반」

조모현 마산제일고등학교 _「어두운 빛의 춤」

김민준 통영고등학교 1학년
_「당신과 함께 책 속을 걸었다」

양현서 세화여자중학교 2학년 _「가방의 무게」

천예빈 통영여자중학교 3학년 _「책장에 걸린 시간」

장하라 중앙탑중학교 1학년
_「저녁의 하늘은 말을 아낀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부 사회는 시마 편집부장인 송연숙 시인이 맡아 진행했다. 송연숙 시인은 인사말에서 청소년작품상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석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춘천에 살고 있는 시인은 학생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다.



1부 사회 : 송연숙 시인

환영사에서 이도훈 시인(발행인)은 멀리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온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감사함과 미안함을 표했다. 이도훈 시인은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 사이의 모임이 뜸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우리는 계속 만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이 성장하여 시인이 되었을 때, 이날 시상식에서 만난 시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환영사 하는 이도훈 시인

축사를 해준 박해람 시인은 참석자들에게 우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인이 그동안 생각해 왔던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을 학생들 앞에 펼쳐놓으며 모든 행성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빠르게 움직이므로 그 속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며, 수상하는 수상자들은 이제 자기만의 속도가 생긴 것이라고 말해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축사하는 박해람 시인

‘문학으로 생각하고 시로 꿈꾸기: 일상에 시를 심는 방법’이란 주제로 이혜미 시인의 축하 강연이 이어졌다. 이혜미 시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시를 쓰면서 겪은 고충들을 털어놓으며 강연을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계속 문학을 해갈 수 있는지, 어떡하면 언어적인 훈련을 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인의 경험담과 시 쓰기에 대한 철학이 학생들에게 잘 전해진 것 같았다. 올해 고려대학교에서 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혜미 시인의 시와 문학에 대한 열정이 앞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축하 강연 하는 이혜미 시인

축하 강연 후 바로 2부가 시작되었다. 사회를 맡은 최서진 시인은 박해람 시인의 축사를 인용해서 자기만의 속도로 사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밝게 웃으며 시작했다.



2부 사회 : 최서진 시인

2부 첫 순서로 2024년 <동아일보>와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한 한백양 시인의 격려사가 있었다. 한백양 시인은 앞서 이혜미 시인이 시 쓰는 좋은 방법들을 말해줘서 자신은 시를 날로 먹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을 폭소하게 했다. “어떤 사실이나 경험들에 대해서 최대한 거짓말을 해 봐라. 거짓말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한 가지 진실만이 남게 된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순간에 다다랐을 때 시로 답하라.”라고 말을 맺어 감동을 주었다.



격려사 하는 한백양 시인

시상식은 <시마동시상>부터 진행되었다. 김도윤, 김준효, 전서영, 황화원 학생이 한 사람씩 시상대에 올라 많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시마동시상 김도윤 학생 <시상: 이도훈 시인>



시마동시상 김준효 학생 <시상: 이도훈, 려원 시인>



시마동시상 전서영 학생 <시상: 이도훈, 려원 시인>



시마동시상 황화원 학생 <시상: 이도훈, 려원 시인>

이어서 <시마청소년작품상> 시상은 장려상 박한울, 이현정, 김민준, 양현서, 우수상 이슬미(대리수상) 정예은 그리고 최우수상 정명준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중학생들의 작품이 생각보다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으로는 이슬미의 「늦가을 해바라기 지는 언덕에서」, 정예은의 「벽장 속 가을」, 황자인의 「빗물에 젖은 편지」 등이 함께 거론되었다.



시마청소년작품상 장려상 박한울 학생 <시상: 한백양 시인>



시마청소년작품상 장려상 박한울 학생 <시상: 신지영 작가>



시마청소년작품상 장려상 이현정 학생 <시상: 한백양 시인>



시마청소년작품상 장려상 이현정 학생 <시상: 신지영 작가>



2025년 11월 1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수상자 단체사진



시마청소년작품상 우수상 박한울 학생 <시상: 이만형 시인>



시마청소년작품상 최우수상 정명준 학생 <시상: 이도훈 시인>

최우수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시를 풀어나간 정명준 학생의 「철도역에 서서」로 결정되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명준 학생은 소감을 말하며 “시는 순간적인 영감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운을 띄웠다. 시를 필사하고 외우기를 계속한다는 정명준 학생은 영어, 수학을 공부하며 시를 쓰는 것은 이성과 감성이 충돌원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수영장에서 찬물과 더운물을 오가는 것에 비유를 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잘 키우고 단단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학매거진 시마는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의 시 창작을 통한 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집중하며 계속 아이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상 / 철도역에 서서 _정명준

북천길 철도역이 녹슬어 있다
길을 걷던 할아버지가 멈춰 섰다

풀이 옷자란 곳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녹슨 철도가
병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 같다

한때 반짝이는 날들을 실어 나르며
길게 기적 울리며 떠나는 열차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철도역

지금은 하늘거리는 코스모스가 몇몇 피어 있을 뿐
열차도 사람도 보이질 않는다

할아버지 일생이 이랬겠다
삶의 궁핍함과 어깨에 짊어진 가장의 무게
모든 걸 견디며

할아버지는 힘든 시간 묵묵히 걸어왔다
이제 할아버지는 동공이 비어있고
팔다리는 앙상하게 뼈만 남았다

북천 철도역에 서서
내가 열차가 되어
천천히 과거역으로 간다

산과 바다와 거친 들판을 지나
어린이를 지나 어른을 지나 다시 어린이가 되는

그러는 사이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계절을 바꿔 달리니 아이가 그곳에 멈춰 서 있다

우울한 먹구름이 빠르게 서쪽으로 흘러가는
저 먼 곳에
아이 적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다

언어를 통해 세계를 여는 청소년들

제4회 시마청소년작품상 심사평

청소년의 글을 읽는 일은 언제나 특별하다. 미숙함 속에서도 닫히지 않은 감각이 살아 있고, 때로는 기성 문학이 잃어버린 생동감이 번뜩인다. 제4회 시마청소년 작품상에 출품된 작품들은 바로 그 열려 있는 언어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사물을 관찰하는 섬세한 시선과 깊은 사유를 가지고, 자기 언어로 세계를 받아들이고 변형시키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일상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상상력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시도는 청소년 문학의 현재와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냈다.

심사위원단은 학생들의 작품을 꼼꼼하게 읽으며 각자 고유한 개성과 내적 감각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 심사는 글쓰기 실력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세계를 감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과정이기도 했다.

최우수상에는 정명준 학생의 「철도역에서」가 선정되었다. 철도역이라는 익숙한 소재가 익숙하게 읽히는 한계로 작동할 수도 있었지만, 시적 자아가 그 안에서 느끼는 정조를 단정하고 절제된 언어로 담아내며 낮익음 속의 울림을 형성한다. 안정감 있는 호흡과 균형 잡힌 구조로 시적 흐름을 무리 없이 끌고 나가는 힘이 돋보인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은 “흠 잡을 데 없는 안정된 작품”이라고 평했다.

우수상은 세 편을 선정하였다. 우수상에 오른 정예은의 「벽장 속 가을」은 독창적 상상력과 새로운 이미지가 두드러진 작품이다. 작품은 해리포터의 ‘계단 밑 벽



심사위원장 조창환 시인

장’을 연상케 하는 설정에서 출발하지만, 벽장이라는 폐쇄적 공간에 가을이라는 계절적 이미지를 병치하면서 감각의 전환과 내적 서사를 이끌어내는 힘이 신선했다. 청소년 문학이 지니는 자전적·상징적 서사성이 가장 잘 드러난 예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우수작 황자인의 「빗물에 젖은 편지」는 다소 장황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의 자유로운 도약이 흥미롭다. 토끼가 등장하는 대목이나 빗물에 젖은 편지를 매개로 펼쳐지는 이미지들은 아직 거칠지만 시가 지니는 발상적 에너지를 충분히 보여준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이라는 나이를 감안한다면, 이 작품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예고하는 징후처럼 읽힌다. 문학적 성취와 잠재력이라는 두 층위를 함께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마지막으로 이슬미 학생의 「늦가을 해바라기 지는 언덕에서」는 읽어볼수록 문장 행마다 사유의 힘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작품 전체가 완벽하게 정제되지 않기는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응축된 사유의 밀도, 그리고 이미지를 이어 붙이는 방식의 독창성을 심사위원들은 높이 평가했다. 사유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내적 깊이를 고려할 때, 이슬미의 작품은 앞으로 더 큰 확장을 예고하는 귀한 출발점이 된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청소년 문학이 단순한 글



심사위원 서안나 시인



심사위원 오혜정 시인

쓰기를 넘어 존재와 세계를 탐구하는 문학적 여정을 시작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각 작품의 완성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찾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이 담겨 있었으며, 그것이야말로 청소년 문학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문학은 언제나 미완성의 가능성 속에서 자란다. 청소년 문학은 그 미완성의 가장 투명한 형태이며, 동시에 가장 역동적인 힘을 가진다. 올해 수상작들은 현재의 성취와 동시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선명히 드러내주었다. 이번 심사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욱 뜻깊었다. 작품들을 읽으며 우리는 ‘이미 시작된 성숙’과 ‘이제 막 열리는 가능성’을 함께 목격했다. 제4회 시마청소년작품상은 그 가능성이 탄생하는 현장을 분명하게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 이들이 언어의 힘을 더 깊이 탐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맞닿게 확장해 나간다면 청소년 문학은 더욱 풍요로운 성과를 남길 것이다. 앞으로 꾸준히 쓰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이들이 한국 문학의 새로운 목소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조창환, 서안나, 오혜정(글) 시인

제5회 시마청소년작품상 응모 안내

문학매거진 <SIMA>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제5회 시마청소년작품상을 공모합니다.

2026년 문학매거진 <SIMA>

봄호 : 2026년 1월 23일

여름호 : 2026년 4월 24일

가을호 : 2026년 7월 24일 까지

응모를 하세요.

봄, 여름, 가을호에 선정된 작품들 중에서
본심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
연말에 시상합니다.

최우수상 : 기념패, 상장, 상금(50만 원, 1명)

우수상 : 기념패, 상장, 상금(20만 원, 2~3명)

장려상 : 상장, 상금(상품권 2만 원, 7명)

- 수상 내역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란하늘 홈페이지

<http://dohun.kr>를

참고해 주세요.





I 적도의 겨울

전소연

매년 겨울, 적도 근처의 뉴올리언스에는 가짜 눈이 내렸다.

눈이 존재하지 않는 적도의 겨울에서 남몰래 눈을 그리워했을 누군가의 기획이었다. 내가 그곳에 머무르던 12월, 뉴올리언스에는 9년 만에 눈소식이 있었다. 플로리다에서 태어나 뉴올리언스로 대학을 온 J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이게 눈이야? 묻던 무지의 눈동자. 지금 내리는 것이 온전한 형태의 눈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시선이 생소해 고개를 끄덕였다. 쌓이지도 않는 눈을 긁어모아 손보다 작은 눈사람을 만들어 기숙사 앞에 놓던 J. 이내 J의 눈사람 옆에는 비슷한 크기의 눈사람 몇 개가 나란히 놓였고, 길목의 나무에는 선분홍의 꽃이 피어 있었다. 이질적인 것들이 공존하던 풍경. 그건 적도만의 겨울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 아이는 눈을 모른다.

서울에 눈이 내리지 않은 지도 십오 년이 지났다. 나의 기도가 특별한 효력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믿지는 않으나 눈은 기척도 없이 사라졌다.

눈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겨울에는 도로 제설을 했다. 눈은 휴일을 모른다. 기상청이 눈 예보를 내보내면

우리는 어김없이 사무실로 모여들었다. 지루한 영화칼슘 상처 작업이 끝나면 각자에게 할당된 도로를 돌며 염수와 영화칼슘을 적절한 비율로 살포하는 작업을 묵묵히 해냈다. 제설 삽날기를 설치한 덤프트럭은 낡았고, 안전벨트는 고장 나 있었다. 거대한 몸집의 차 안에서 우리는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속절없이 덜컥거렸다. 고작 덜컥거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겨울은 유독 눈이 많이 내렸다. 두 달 동안 열세 번의 비상근무를 선 후에는 눈 예보가 보이면 치를 떨었다. 누구도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 삶의 막다른 길이었다. 자주 뜬눈으로 밤을 새웠고, 도로로 내쫓겼다. 낡은 덤프트럭은 길 복판에서 퍼지기 일쑤였고, 속절없이 추위에 떨던 밤은 외로웠다.

영화칼슘 결정이 도로를 주행하던 차에 흠집을 내면 보상금 지급 소송에 시달렸다. 선택을 하지 않는 날에 변호사를 만났다. 아니요, 과실 비율이 낮고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1%도 과실을 인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선택이 남으면 전국 공공기관들이 다 피해를 본다니까요. 뒤에 차량이 있을 때마다 제설기를 끄면 제설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신호 대기 중에는 당연히 제설기를 끄죠. 블랙박스 영상 보셨어요? 정상 주행 중이었잖아요. 뒤에 오는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맞잖아요. 제설차를 대변하기 위해 자주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그 래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눈이 사라지게 해 달라는 기도는 사소한 반항 정도였다.

음, 어린 시절의 나는 눈을 좋아했다. 손에 내려앉은 눈송이가 녹기 전 찰나의 순간, 그 결정을 탐하는 시간이 좋았다. 쌓인 눈 위에 콧코 눌러쓴 몇 글자로 간지러운 마음을 고백하던 순간이, 전화를 걸 핑계를 만들기 위해 남몰래 첫눈을 기다리던 밤이, 시린 손을 견뎌가며 만들던 눈사람이 좋았다. 작은 돌을 주워 눈을 만들고

꺾인 나뭇가지를 주워 팔을 만들었다. 뉴올리언스에서 상상할 수 없던 크기의 눈사람들을. 그럴 때면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망설임 없이 눈사람에게 내어 주었다. 눈으로 만든 사람,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형태를 한 것들을 내 손으로 빚어내곤 했다.

시선 끝에 내가 낳은 아이가 걸린다. 세상이 온통 금증으로 가득한 다섯 살의 아이가 나를 보고 있다. 아침에 양 갈래로 땀아준 머리는 이미 다 헝클어뜨린 채 온 얼굴로 환히 웃는 아이. 눈의 서늘함과 포근함을 감각해보지 못한, 눈사람을 만들어보지 못한 아이. ‘겨울’이라는 계절과 ‘눈’이라는 단어의 맛닿음을 모르는 나의 작은 아이.

유치원에서 색종이 놀이를 하고 온 날, 아이는 자신이 오려 만든 눈 결정 모양의 색종이를 소중히 꺼내 보았다. 아이의 사전에 ‘눈’이라는 단어가 피어난 날이었다. 호기심의 눈동자. 엄마는 눈 본 적 있어? 당연하게도 아이의 모든 ‘첫’ 순간에 얼마쯤의 책임을 느끼는 나.

불현듯 아이에게 눈을 보여주고 싶어졌다. 충동적으로 유리 구의 입장권을 끊었다.

나라는 사라진 것을 추억하기 위해 압도적인 크기의 유리 구를 만들었다. 우리가 겨울이라고 부르는 석 달 동안 유리구 안에는 끊임없이 인공의 눈이 내렸다. 찬 공기가 불을 스치고 속눈썹에 불현듯 눈송이가 내려앉는다. 낯선 감촉, 차갑게 피부에 닿았다가 체온에 굴복해 금세 녹아버리는. 어느 날에는 나의 기다림이었다가, 사랑이었다가 또 어느 날에는 나의 증오였던 눈. 유리구 내부는 눈을 그리워하는 어른들과 눈을 처음 보는 아이들로 북적였다. 인파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 아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지나온 세월에서 많은 것들을 잃었다는 감각이 심장 구석의 통증으로 뒹쳤다.



“엄마, 이게 눈이야?”

코끝이 빨개진 아이가 나를 물끄러미 올려다보며 물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무지의 눈동자. 적도 근처의 나라에 사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눈이 내리는 나라에 살았던 이방인이 될 것이다.



전소연

주머니시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였지」

| 친절한 이웃

· 이재유

탐사채굴선 켈러백이 항해하는 우주는 너무나 평온했다. 선장이 한 명뿐인 선원에게 말했다.

“별일 없는 건 좋지만 이제 뭐라도 찾아야 한단 말이다. 탐사 레이더에 걸리는 건 없나?”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선장은 밖에서 레이더를 한번 살펴보라고 했다. 선원은 심심하던 차에 소일거리가 생긴 셈 치고 조종실에서 나가 점검을 마치고 돌아왔다.

“레이더에 달린 감지 막대가 조금 틀어져 있어서 지향성을 수정하고 왔습니다.”

“수고했다. 다시 확인해 보.”

선원은 잠시 화면을 보다 작은 점을 발견하고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레이더에 약하게 신호가 잡힙니다. 이리로 방향을 잡을까요?”

“그래, 한번 가 보자고. 좌표계 센서는 이상 없지?”

“평상시처럼 미세한 노이즈가 검출되는 게 문제없어 보입니다.”

“좋았어! 이번 셈에서 큰 거 하나 캐러 가자.”

켈러백이 빠르게 이동하는 동안 신호가 커졌고 둘의 기대가 부풀었다. 예상거리의 절반 정도 도달했을 무렵 기체에 경보가 울렸다. 좌표계 센서 이상이였다. 선장이 선원에게 이유를 파악하라고 했다.

“기존 좌표계 신호보다 강한 광파 노이즈가 있어서 기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좀 늘어나도 목표지점까지만 가면 돼. 수동으로 천천히 선회하면서 가자고.”

켈러백이 속도를 늦추며 방향을 잡으려 했으나 노이즈는 점차 커졌다.

“이동 경로를 분석해 본 결과, 점점 노이즈 방향으로 기체가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항성계로 잘못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진다. 우선 반대 방향으로 가자.”

선원의 노력에도 오히려 점점 끌려가는 듯했다. 그러다 미식별 암초가 나타나 부딪혔고 기체가 멈췄다. 기체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덕에 부서지지는 않았다. 전원이 꺼져 잠시 어두워졌으나 금세 예비전원이 들어와 조종실 전등이 켜졌다. 선장은 선원이 무사한지 물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나도 괜찮아. 내가 시스템을 점검할 테니 자네는 나가서 외부 손상이랑 암초를 확인해 보.”

선원이 외관을 살피러 갔고 선장은 모니터로 센서 목록을 확인했다. 받은 충격에 비해 상태가 좋았다. 잠시 후 선원에게 무선으로 연락이 왔다.

“다행히 외부 손상이 적습니다. 추진장치의 비늘 장갑이 조금 벗겨졌는데 이동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암초가 조금 독특한 물질입니다. 이걸 직접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선장은 시스템을 자동으로 돌리고 밖에 나왔다. 선원은 탐사용 집게로 기체에 얹혀있는 암초를 이리저리 찢러보고 있었다. 집게에 백색 물질이 달라붙은 모습이 보였다.

“일반적인 암초하고 다릅니다. 암초 전체가 한 물질이고 이렇게 점착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군. 부식성이 없어 보여도 암초를 빨리 떼어내는 게 좋겠어.”

선원은 제법 넓게 붙어있는 암초를 훑어보며 말했다.

“물자가 떨어지기 전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구조 신호는 열어 두어야지. 돌아가서 장비 챙겨 오자고.”

안심시키려는 듯이 고저 없는 목소리였다. 둘은 정비

용 장비를 새로 챙겨 나왔다. 예상보다 접착성이 강했으나 위험한 물질은 아니었다. 기체 손상을 감수하더라도 때는 속도를 높이기로 한 시점에 켈러백에서 알림이 왔다.

“우리 방향으로 미확인 기체가 접근 중입니다.”

둘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조종실로 복귀했을 때 해당 기체가 켈러백 근처에 도착했다. 둘은 다가온 물체의 윤곽을 볼 수 있었다.

“저는 처음 보는 기체입니다. 전면에 붉은색 감지 센서랑 작업 팔이 여러 개 달린 거로 보서는 채굴 전용 기체 같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우리를 식별했을 겁니다.”

“일꾼일지 강도일지 아직 모르지. 구조 신호를 감지했을 테니 반응을 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음성 통신이 연결되었다.

“여기는 채굴선 슈피네입니다. 들리십니까?”

온화한 목소리에 선장이 약간은 안심하며 말했다.

“잘 들립니다. 여기는 탐사채굴선 켈러백입니다.”

“역시나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이었군요. 지금 암초에 부딪히신 거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선장은 사고를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손상이 적어 막 복구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던 참이었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복구는 무난하겠습니다. 혹시 물자는 여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직접 드릴만 한 건 없지만 복구가 빨리 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오랜 탐사 중에 새로 발견한 지역으로 가던 중이라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암초 제거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접착성이 강해서 곤란하던 참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기체가 암초를 떼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슈피네는 곧장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기체에 달린 여러 개의 작업 팔이 암초를 쉽게 벗겨내었다. 작업 팔은 끝이 뾰족해서 암초가 잘 붙지 않았다. 켈러백 혼자서 하

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끝났다. 작업을 마치고 켈러백 선장이 슈피네 선장에게 통신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덕분에 바로 탐사를 이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기체에 탑재된 작업 팔이 이 암초를 제거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하신 거 같아 보이는데 혹시 이게 어떤 물질인지 아십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이 근방에서는 자주 보이는 물질입니다. 레이더에 잘 보이지도 않고 걸리면 때기 곤란해서 조심합니다. 다음에 이 지역에서 탐사하실 일이 있으면 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저희야말로 다음에 꼭 들러서 뭐라도 보답하겠습니다.”

두 선장은 서로 연락처를 나눴고 켈러백은 목적지로 향했다. 노이즈는 여전히 있었으나 해맨 경험 덕분에 이번에는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점점 멀리 사라지는 켈러백을 보며 슈피네의 선원은 선장에게 말했다.

“그물에 애매하게 걸리긴 했어도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쉽지 않습니까?”

선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딱 봐도 거의 빈 기체라서 손해야. 섬을 찾아서 채굴한 다음에 오거나, 동료랑 같이 여기에 오면 그때 크게 한탕 하는 거지. 광학 좌표계 쓰는 기체들은 여기서 항로가 흔들리기 쉽거든.”

“역시 선장님이십니다. 광파 노이즈가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은 보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삶의 지혜 아니겠냐.”

이윽고 슈피네는 그물을 고치기 시작했다. 그물이 광파를 받아 은은한 흰색 빛을 발했다.

새는 한 권의 항법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북반구에서 기러기들이 날아온다. 그럴 때면 이곳보다 더 추운 곳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는다. 이곳보다 먹을 것이 적은 곳. 이곳보다 눈이 더 많이 쌓이는 곳. 지구 어딘가는 이곳보다 더 가혹한 곳이 있고 적어도 이곳은 그곳보다는 살만하다는 것에 또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서 날아가는 것들의 선두를 생각한다.

뒤끝의 독촉으로 날아가는 화살의 촉과 방향 없는 곳에 붙여 놓으면 방향이 되는 화살표들, 방향들은 닳는 법이 없고 오로지 선두라고 자처하는 것들만 닳거나 늙어간다. 봄이 앞서고 때로는 겨울이 앞서면서 46억년 동안 달리고 있는 지구의 고단함을 생각한다. 봄이 지치면 여름이 앞장서고 또 지친 여름을 뒤로 보내고 선두가 된 가을. 돌아가면서 선두를 바꿔 지친 선두를 쉬게 하는 기러기들의 안행진(雁行陣)을 닮았다.

새를 항법서(航法書)라 지칭해 놓고도 정작 새를 읽을 기회는 많지 않다. 이미 항법을 잇은 애완의 새들 말고 살아 있는 새를 손으로 쥐어보거나 만져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죽은 새를 읽는다. 최근에 읽은 새는 젓비둘기였는데 온몸엔 온갖 보호색들로 비좁다. 구름의 색깔, 무지개의 꼬트머리 색깔과 소실점 끝의 가물가물

한 색깔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 것들은 항법서 속에 간간이 그려 넣은 일종의 화보라고 느꼈다. 화보들은 주로 숲에서 빌려온 것과 구름에서 빌려온 색깔로 나뉜다.

죽은 새를 읽다 보면 도망치는 것들이 없어 좋다. 또 푸드덕 놀라는 일과 두근거리는 공기가 만져지지 않아 좋다. 좋다는 말은 무섭지 않다는 말과 번갈아 쓸 수 있다. 그런 죽은 새의 책엔 이미 누군가 그어놓은 밑줄이 많아서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다. 다만 염통에선 아직 소화되지 않은 별자리들이 있다. 무엇보다 죽은 새가 살아서 하늘을 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람, 그중에서도 기류라는 연료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새들을 위한 공중 선로 역할을 했을 기류는 식물성도 동물성도 아니지만 방향에 민감하고 새들이 아닌 무동력 비행체들을 보면 이리저리 조종하다 지상으로 곤두박질치는 일을 즐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류는 생물 중 하나로 보인다.

새는 동력을 가진 존재다. 어쩌면 저 혼자 볼 수 있는 온갖 계기판들을 어딘가에 설치해 두고 그때그때 비행을 조종할 것 같다. 그런 새들의 이륙과 착륙을 책임지는 일은 평사낙안(平沙落雁)의 모래밭이거나 잔잔한 수면이다. 새들이 떨어는 깃털은 마치 비행기가 날아가고 난 뒤에 길게 따라가는 비행운과 닮았다. 또 새의 속도를 책임지는 일은 깃털의 곡선이 제 몫을 다 했을 것이다.

죽은 새를 한참 읽다 보면 자잘한 바람들이 죽은 새의 깃털을 밟고 이륙하는 것이 보인다. 새와 비슷한 줄거리를 가진 항법서 중엔 부유력(浮游力)을 설명해 놓은 먼지와 자유자재의 낙하를 자랑하는 건설(乾雪) 즉, 가볍고 보송보송한 눈이 있다. 또 죽은 새의 몸엔 이미 조금의 바람도 남아있질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공기의 불씨같이 몇 올 미세하게 부는 속 털이 있다. 그 정도 분량이면 어느 늙은 화백이 노안도 한 장은 그리고도 남을 만큼의 기력과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방향쯤은 불러 세우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새들은 가끔 무인도를 격납고로 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구도 한곳에 정착한 행성은 아니다. 초속 200킬로미터로 달리는 태양의 후미를 초속 30킬로미터의 공전속도, 46미터의 자전속도로 쉬지 않고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런 속도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지구의 속도는 인간의 정속이고 정속엔 모두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끔은 과속과 감속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너무 빨라서 이탈했거나 너무 느려서 주저

앉았던 일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자전하는 항로를 따라 툰드라를 닮은 겨울과 폭염이 돌아온다. 그것은 철새의 이동경로를 닮았지만 인간은 새들과 달리 여러 계절을 한곳에서 건넌다.



박해람

1998년 월간 <문학사상>으로 등단

시집 『늪은 침대의 배후가 되어가는 사내』 『백 리를 기다리는 말』
『겨울밤 위원회』

정택근의 이-생활화

아홉 번째 이야기

정선바위솔 : 돌나물과 *Orostachys chongsunensis* Y.N.Lee



정택근의 야생화 이야기 -정선바위솔

가을의 끝자락, 산그늘이 길게 드리운 오후, 바위 틈새에서 마지막으로 빛을 올리는 꽃이 있습니다. 정선바위솔입니다. 한반도 석회암지대의 협곡과 절벽에만 자라는 한국 고유종으로, 단단한 바위와 바람 사이에 스스로 터전을 만들어 생존해 가는 꽃입니다. 꽃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르러야 피며, 꽃차례의 길이는 6cm 정도이고, 꽃받침은 5갈래로 갈라지고 연녹색입니다. 그때쯤이면 다른 풀꽃들은 이미 스러지고, 계곡의 물소리마저 낮아져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정선바위솔은 마치 산의 마지막 숨결처럼 피어납니다.

바위솔속 식물들은 대체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자랍니다. 돌의 미세한 균열에 뿌리를 내리고, 비와 이슬로 하루를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정선바위솔은 그중에서도 잎이 두껍고 잔털이 있어 찬바람에도 수분을 잃지 않습니다. 잎은 로제트 모양으로 낮게 붙어 있다가, 가을이 깊어지면 그 중심에서 꽃대를 밀어 올립니다. 작고 연한 자줏빛 꽃들이 층층이 피어나며, 바위의 차가움을 잠시 덮습니다.

이 꽃을 처음 본 것은 정선의 한 너덜지대였습니다. 햇살은 이미 기울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틈에서 저는 믿기 어려울 만큼 따뜻한 빛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꽃대 하나하나에 작은 별들이 박혀 있었는데, 그때 보았습니다. 이 꽃은 '생의 시작'을 노래하지 않는다, 오히려 끝에서 완성되는 생의 의미를 보여주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선바위솔의 시간은 '남아 있음'이 아니라 '남겨짐'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물러난 뒤에도 피는 그 한 송이가, 어쩌면 가장 명징한 존재의 언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선바위솔은 바위틈에서 태어나 바위 위에서 생을 마칩니다. 흙 한 줌 없는 자리에서, 오로지 바람과 이슬에 의지해 하루를 엽니다. 그 생의 조건은 언제나 한계의 언저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위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이야말로, 정선바위솔이 우리에게 남기는 깨달음일 것입니다. 한 해의 꽃자락, 카메라를 들고 그 앞에 설 때의 묘한 정적을 기억합니다. 화려한 계절은 저만치 물러가고, 바위 위의 초록들은 마른 잎으로 변해갑니다. 그럼에도 절제된 아름다움 앞에서, 인간의 욕망과 소유의 언어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남은 생을 어디에 붙일 것인가?” 꽃의 질문입니다.





정선바위솔

바위의 깊은 숨결 속에서
한 송이 꽃이 눈을 뜬다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틈,
세상의 마지막 온기가 머문 자리

나는 그 앞에
조용히 카메라를 내리고
한 해를 담는다

돌보다 단단한
그 고요를 바라보며



농부, 생태사진작가 정택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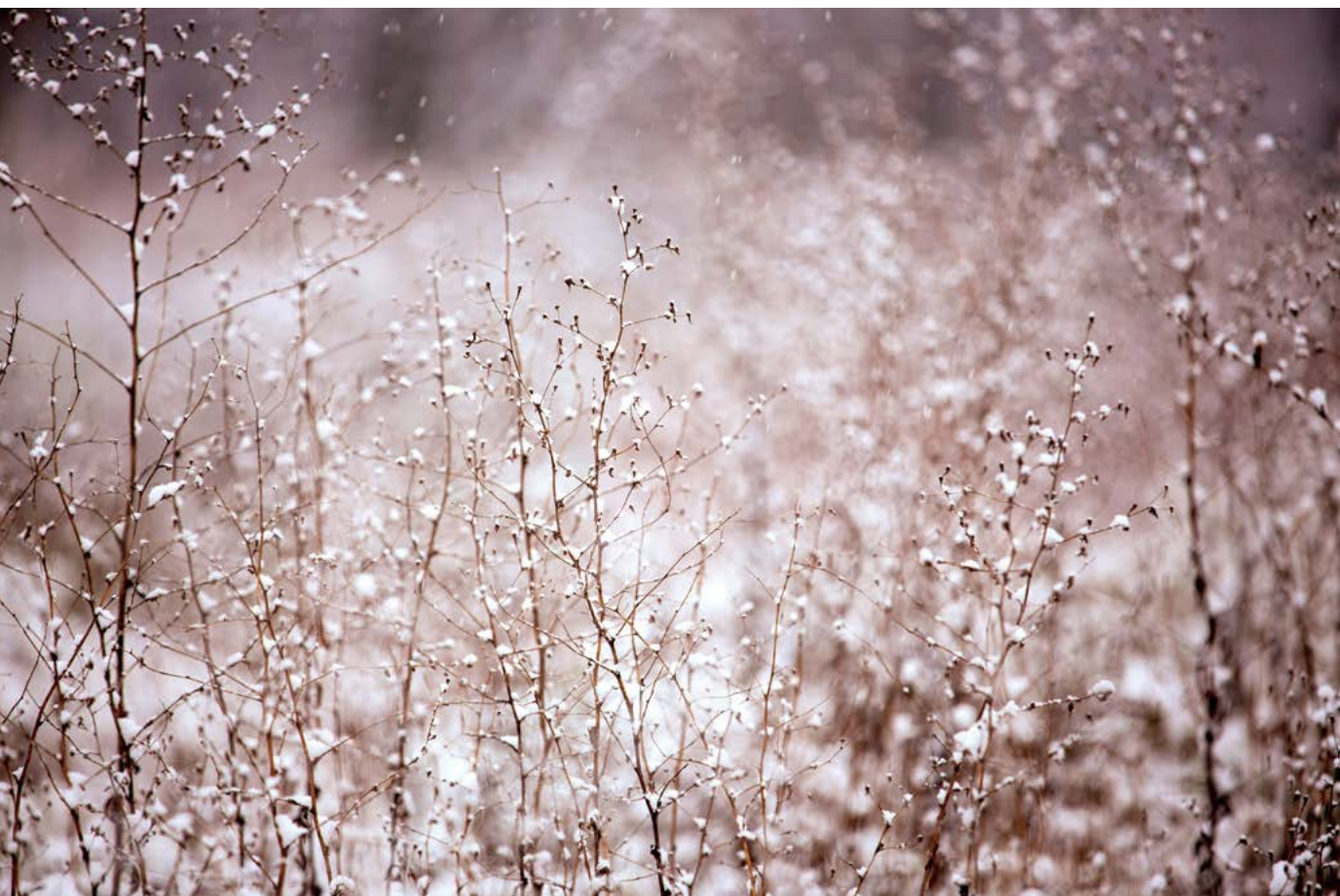
아산시니어클럽관장, 생태사진작가
지적장애시설인 <예뵈원장>, <충청남도노인복지협회부회장> 등 역임
<https://www.facebook.com/taekgeun.jung/>

* 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참조했습니다.

문성택의

불씨 하나 품고

그만이기를





아름다운 것들은 덧없고, 덧없는 것들은 더 아프다

그만 아름다워지기를. 가을이 깊어질수록 나는 이 말을 떠올린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 한 그루가 어느새 붉게 물들어 있고, 그 아래 떨어져 오그라든 낙엽들이 바람에 배수구 쪽으로 쓸려간다. 아름다움이 너무 과하면 견디기 어렵다. 어떤 풍경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슬프다. 절정에 이를수록 곧 저물 것이라는 예감이 들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렇다. 누군가 지나치게 환하게 웃을 때, 그 웃음이 너무 과하게 보일 때 나는 괜히 불안해진다. 그 이면의 어둠이 더 짙을 것 같아서. 아름다운 것들은 덧없고, 덧없는 것들은 더 아프다. 그래서 가을이 눈에 밝히면 나는 생각한다. 제발 그만 아름다워졌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니 더 이상 붉어지지도 노랗게 물들지도 말았으면. 하지만 계절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

을 간다. 매년 똑같이 절정을 향해 치달아가다 텅 빈 겨울에 이른다. 결국 아름다움이란 그런 것이다. 멈춰 세울 수 없고, 붙들 수도 없는 것. 다만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가만히 아파할 수밖에. 그리고 알게 된다. 아름다움을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그만 바닥이기를. 누가 들으면 기도처럼, 혹은 지쳐버린 체념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아프거나 외롭거나 막막할 때, 우리는 으레 그렇게 속삭이곤 한다. 이쯤에서 제발 끝이기를, 더는 추락하지 않기를. 그렇지만 바닥이란 대체 어디일까. 어디까지 내려가야 바닥이라 부를 수 있는 걸까. 아직 여기가 아니라고, 조금 더 낮은 곳이 남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건널목에서 빗물

속에 가라앉은 낙엽을 보다가도, 이른 아침 깨어 먹먹하게 천장을 바라보다가도 불현듯 알게 되는 것이다. 바닥을 친다는 건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 누구도 대신 추락해 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누구든 바닥을 갈구한다. 갈 데까지 갔으니 일어서자고. 그러면서도 두려운 것.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영영 주저앉아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래서 바닥을 유예하고 끝을 미룬다. 어쩌면 바닥 같은 건 애초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추락하는 중에도, 서 있다고 여기는 지금도, 조금씩 올라간다고 믿는 순간에도, 그저 발을 디디고 있을 뿐이다. 바닥을 찾는 대신 지금 발을 디딘 이곳을 느끼는 것. 끝이라 여기든, 치고 올라설 곳이든, 차갑든 따스하든, 지금 이곳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나의 바닥.

그만 눈사람이기를. 이 하얀 눈덩이가 언제쯤 제 형상을 놓아버릴까. 눈사람은 그저 거기 서 있다. 녹을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때로는 사는 게 자꾸만 눈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 기대하는 모양으로 빚어진 채, 제 안의 속내를 꺾꺾 뭉쳐놓고 있는 느낌. 웃는 표정을 해야 할 자리에서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괜찮지 않은 데도 괜찮다는 말부터 튀어나오는 일. 그러는 사이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린다. 그럼에도 달리 생각해 보면 눈사람으로 사는 건 때로 편하다. 기대에 부응하면 되고, 정해진 자리를 지키면 되고, 녹아내리는 걸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문득 지쳐버릴 때가 있다. 이제 눈사람이기를 그만두고 싶어지는 날들. 모두가 원하는 기대를 벗고 물이 되어 흘러가고 싶은 밤들. 한낮을 지나 별이 길





어지면 눈사람은 어김없이 사라진다. 그게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수긍해야 한다. 올겨울이 다 가기 전에 나는 조용히 녹아내리려 한다. 눈동자였던 돌맹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스며들려 한다. 땅속 깊은 곳으로, 봄을 기다리는 씨앗들에게로.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솟아오르려 한다. 이번에는 눈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그만 돌아서기를. 말해 놓고 참 자주도 뒤를 돌아본다. 짙어진 것은 시간뿐인데 이따금 버거워진다. 그럴 때면 자꾸만 뒤쪽이 궁금해진다. 내가 정말 그곳을 지나왔는지.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 이 자리가 과연 앞쪽인지.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들춰보듯 과거를 되짚는 일은 생각보다 공허하다. 눈부시던 한때를 기억으로 증명해 보려 애쓸수록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더 초라해지는 것 같다. 뒤를 볼 때마다 나는 조금씩 뒤로 끌려간다. 마련이

집착이 되어 목덜미를 잡아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그만 돌아서기로 한다. 있었던 일은 있었고, 지나간 것은 지나갔다고. 기억은 되돌아갈 곳이 아니라 두고 올 곳이다. 하지만 겨울은 아직 뒤를 보지 않는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피어나는 입김 하나로 충분하다. 유리창 성에에 입김을 입히면 그 자리가 꽃 필 자리라고.



윤성택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2001년 <문학사상> 등단.
시집 『리트머스』 『감(感)에 관한 사담들』
산문집 『그 사람 건너기』, 운문집 『마음을 건네다』



법과 이야기

저는 당신의 꽃을 받지 않을 겁니다

전 형 호 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제 생일도 아니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지난밤 우리는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가 던진 수많은 잔인한 말들에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가 미안해하는 것도,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기념일도 아니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지난밤 그는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악몽 같았어요.

현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죠.

오늘 아침 깨어났을 때 제 몸은 온통 아프고 멍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가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날’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지난밤 그는 저를 또다시 때렸어요.

이제까지 어느 때보다 훨씬 심하게요.

만약에 그를 떠난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제 아이들을 돌보나요? 돈은 어떻게 하고요?

저는 그가 무섭지만 그를 떠나기도 두려워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가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 장례식 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그는 결국 저를 죽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때려서요.

만약에 그를 떠날 만큼 용기와 힘을 냈다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 폴레트 켈리,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몇 해 전 제 사무실에 69세의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황혼 이혼을 원하시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혼 사유는 가정 내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남편이 퇴직 이후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유를 좀 더 캐물자 남편이 오래전에 몇몇 여성들과 외도를 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의 이유들만으로는 석연치 않아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술을 과하게 마시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느냐고요. 그러자 그 할머니는 “아유, 말하면 뭐해요. 허구헌 날 술을 마시고, 술만 마시면 때리지.”라고 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제가 “할머니, 그런 말씀을 왜 이제서야 하세요.”라고 하면서 가장 최근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언제냐고 묻자, 할머니는 불과 지난주에도 맞았다고 하셨습니다. 2년 전에 일어난 남편의 외도는 이혼 사유로 즉시 떠올리지만, 결혼 기간 내내 심지어 불과 1주일 전까지 일어난 폭행은 이혼 사유로 말씀하시지 못한 것입니다.

이혼 사건을 의뢰하는 부부 사이에서 가정 내 폭력은 정말 자주 등장하는 이혼 사유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24년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이혼상담을 한 사람 중 여성의 경우 59.1%가 남편의 폭력 등 부당 대우를 이혼 사유로 삼아 상담을 했고, 남성의 경우 13.6%가 아내의 폭력 등 부당 대우를 이혼 사유로 삼았다고 합니다.

가정 내 폭력이라고 하여 일반 폭행·상해사건보다 결코 더 가볍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정 내 폭력은 고착화된 가정 내 서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 외에 정신적 폭력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일반사건의 폭력보다 훨씬 더 정도가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반복됩니다. 1998년에 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가정 내 폭력을 당한 아동에 대한 보호는 상당히 철저해진 반면 최근까지도 폭력을 당한 아내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동학대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로 쉽사리 인정되지만, 아내에 대한 학대는 ‘비바람은 집안으로 들어가도 법은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고전적 논리에 따라 형사적으로 경시되기 일쑤입니다.



어떤 연구자는 시대와 지역, 종교, 인종, 계급, 교육 수준, 일부일처제와 일부다처제를 막론하고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해 온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아내에 대한 가정 폭력’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나긴 인류의 역사 동안, 왜 ‘매 맞는 아내들’은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해서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는 걸까요. 이 의문에 대한 약간의 답을 최근에 읽은 한 문학작품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 『나오미와 가나코』(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당신이 죽었다」의 원작)는 가정폭력의 사슬을 빠져나오기 위한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코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여성이고, 가나코의 친구인 나옴이는 가나코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집안에서 자란 나옴이는 가나코를 불행에서 구출하기 위한 작전 ‘클리어런스 플랜(clearance plan)’을 세웁니다. 방법은 가나코의 남편을 살해하고 실종으로 위장하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주

저하던 가나코도 나옴이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 두 여성은 완전범죄를 꿈꾸며 가나코의 남편을 살해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소 억지스러운 서스펜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소설에 등장하는 가나코의 심리를 통해 저는 제 의뢰인이었던 할머니가 남편에게 당한 폭력을 말씀하시지 않았던 심정을 다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책 속에서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는 나옴이에게 가나코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젯밤, 다쓰로(가나코의 남편) 씨와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해 줘서 그냥 용서할까 싶어. 앞으로는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니까.” 또는 “남편이 술에 취해 그런 거야. 술이 깬 후엔 반성하며 사죄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어.” “이혼을 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그 사람, 일단 머리꼭지까지 화가 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폭력 머신으로 변해. 그렇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든 친구들까

지 다 죽일지도 몰라.”라고 말합니다. 반복될 것이 너무나 빠른 약속에 자신을 맡기는 모습, 주변에 닥칠지 모르는 피해 때문에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피해를 외면하는 모습은 ‘가정’이라는 ‘성스럽고 불가침의 제도’에 가스라이팅 당한 많은 여성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오쿠다 히데오의 위 작품은 심리학자 레노어 워커(Lenore Walker)가 제시한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의 심리적 단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 학습된 무기력:** 반복되는 폭력의 주기(긴장→폭발→화해)를 겪으면서 피해자는 어떤 행동을 해도 폭력을 피할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며, 가해자를 떠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 폭력 주기에 대한 믿음:** 피해자는 가해자가 폭력 이후에 보이는 사과와 애정 표현을 믿으며 다음번에는 폭력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결국 반복되고, 피해자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주기에 갇히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위와 같은 폭력 상황이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위협을 느끼게 되고 결국 가해자의 폭력이 당장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위해 선제적으로 가해자를 공격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러한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형법상의 심신미약 또는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은 법과 제도에 호소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맞고 산다’는 수치심이 커서 자신의 고통을 솔직히 드러내기를 어려워하고, 폭력 가정이라도 남아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며, 특히나 여성에게 드리워진 ‘가정은 자아정체감’이라는 고질적 관념 때문에 가정을 버린다는 것은 곧 자기 존재 자체의 부정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쉽사리 가정폭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여성학자 정희진은 『아주 친밀한 폭력』이라는 책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현재의 가족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피해자, 가해자, 사회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구타하는 남편이 건네는 ‘꽃’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학자 정희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범죄는 가능하다. 범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보이지 않을 때다.”



전형호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어서문학과(대학원)
(현)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_02.6953.7060
hhjeon@saerok.co.kr

| 오늘의 봄은, 웃음으로 열린다



웃음은 최상위 포식자, 천적이 없다

세상살이 찌든 때 한입에 다 삼켜버려

장훈 디카시집 『숨』에서 「웃음 사슬」

웃음은 영혼의 봄이라고 했다. 봄엔 연둣빛 새싹들이
햇살에 순하게 비치고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니 어디
를 둘러봐도 지극히 아름답다. 영혼에도 계절이 있다면
웃음은 그 아름답고 따뜻한 봄일 것이다. '웃을 일이 없
는 세상'이란 말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꽤 자주 크게 웃으며 살았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친구와 통화를 하며 웃었다. 한

말을 또 해도 지루하지 않았고 안부에 묻어 있는 정감에
미소가 스며들었다. 때로는 잘 살아야 한다는 열등의식
이 몰고 온 피로감에 지쳤을 때도 가벼운 이야기 속 웃
음이 마음을 다독여 주곤 했다. 시를 쓸 때 주제를 너무
크게 잡으면 공허한 작품이 된다. 웃음도 그렇지 않을까.
가까이에서 찾으면 시의 소재는 참 많다. 웃음의 소재도
그렇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본 적이 있는가. 그때
서서히 풀리는 마음의 주름. 그것이 웃음의 미학이다.



아주 오래전
달로 떠난 항아
이야기 보파리 풀렸나
재잘재잘 밤이 짧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

- 이동제, 「통화중」

『2024중랑디카시인협회
사화집』 창간호에서

웃음은 최상위 포식자라니 이런 포식자에게는 언제든 잡힐 생각이다. 막 피어나는 꽃잎이 사랑스러워서 웃음이 나고 제 몸보다 큰 식량을 나르는 개미가 우습다. 간식 달라고 동그란 눈을 굴리며 ‘웅웅~’ 하는 강아지의 꼬리만 봐도 웃음이 터진다. 주변에 웃을 일은 널려 있

다. 또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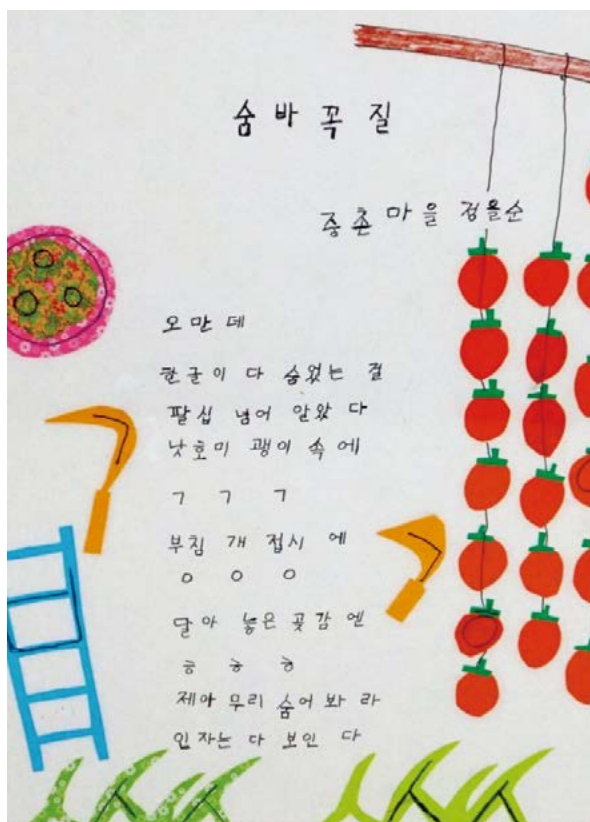
웃음은 개인의 위안이자 세대의 힘이 되기도 한다. 여성 하위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노인이 되었다. 이리저리 놀리고 살아온 세월만큼 그들에게는 하고



일생을 내어주고도
늘 자리를 뺏기던

조신을 강요받던 할머니들
이젠 수다와 웃음이 권력이다

송재옥, 「할아버지 금지 구역」



정을순, 「숨바꼭질」

싫은 말이 많다. 아예 할아버지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간판을 땡! 닫힌 문으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는 통쾌하다. “오늘 저녁은 짓지 말까”, “밥은 해봤으니 알아서 먹으라 하자!”

누군가의 웃음 속에서 나는 빛을 본다. 그건 다 타버린 재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이다. 세상은 그런 웃음 덕분에 하루를 더 버티고, 사람은 그 불씨 덕분에 내일을 맞는다. 우리 삼신리 할머니들 파이팅!

웃음은 어쩌면 울음이 다 말하지 못한 마지막 문장일지도 모른다. 세상살이에 지쳐도 우리는 마지막 문장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여든이 넘어 한글을 배운 정을순 할머니의 시다. 그동안 갑갑했던 세상에 드디어 빛이 들어온 것이다. 그 시심 속 웃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따뜻하고 찡한 눈물이 고인다. 나도 ‘오만 데’ 숨어 있는 웃음을 찾아본다. 우선 거울 앞에 선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오늘의 봄을 연다.

웃음이란 결국 기쁨의 표정만이 아니라, 살아 있음의 증거일지도 모른다. 웃을 일 없어도 웃는 사람, 그는 이미 절망을 통과한 사람이다.



송재옥

제7회 이병주 국제문학회 디카시 입상. 제2회 대구신문 신춘문에 최우수상 등 다수 공모전 입상
디카시집 『소리의 그림자』 『저문날의 삽화』

靑, 시로 듣다

유현아

가을은 할인의 계절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진다
나는 모자를 힘껏 두 손으로 누르고
짧은 심호흡을 한다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친구의 머리카락들이
바람에 사방으로 날리고 있다
하루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이지나도 친구는 14번 출구에서
전단지를 한 장씩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
좀 받지
전단지를 외면하는 손들은 주머니에 꼭꼭 숨고
가끔씩 어떤 손은
불쌍한 듯 위아래를 빠르게 훑어보고
전단지를 받는다
학교로 가려면 14번 출구로 나가는 게 제일 빠르는데
친구 때문에 12번 출구로 갈 때가 많다
좀 일찍 가도 여전히
좀 늦게 가도 여전히
왜 아침에 전단지 알바를 하는지 묻지 못했다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나도 그런 적 많으니까
학교 가는 길이 좀 멀어도 어쩔 수 없지



전단지 문구처럼 내 답답함도 할인해 줘야지

오늘로 알바 꼬~을 이제 응원봉 살 수 있다
잊고 있었다
친구는 아이돌 팬이었다는 사실을
아! 줌!
할인된 내 마음 돌려줘

사춘기는 절대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손주다
할머니가 가장 예뻐하는 손주다
사촌들은 나를 부러워한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내가 가면 정말
다람쥐처럼 내 앞으로 오신다
그래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랑 엄청 받았다

태어나서 7년 동안 엄마랑 떨어져 자본 적 있니
엄마 출근할 때 고래고래 소리쳐 울어본 적 있니
할머니가 눈물 그렁그렁한 내 손을 잡고
전철 노약자석에 앉아 종점에서 종점까지 왕복해 본
적 있니

할머니는 내가 아플 때마다
차가운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지
할아버지는 내 숙제를 봐줄 때마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미안해했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충분히 사랑받고 컸어
친척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키웠다고 흐뭇하게
바라보지

엄마를 보면
화나고 억울한 게 생각나는 걸 보면
일해서 번 돈으로 내 학원비 대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걸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는 거 보
면

그런데 사촌들이 그거 아니
목까지 올라오는 소리를 꺽꺽 누르고 있다는 거
그게 슬프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

분명 나쁜 마음은 아니었는데

너 그때 왜 그랬어?

내가 한 말도 아니었는데 내가 한 말이었다고
내가 먹자고 한 파스타 안 먹고 니가 좋아하는 볶음
밥도 같이 먹었잖아
내가 기다리지 말라고 했는데 기다려놓고 나한테 화
냈잖아
내가 같이 가기 싫다고 했는데 내 목 조르면서 가자
고 해서 간 거잖아

너 그때 왜 그랬어?

내가 시험공부 망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짜
증냈어
내가 귀찮아서 옆드려있을 때 넌 신나게 다른 친구랑
깔깔댔잖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제는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너랑은 계속 친구 해야 하니까 마음에 담아둔 거 다
얘기한 거야

내가 미안해
나는 몰랐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많이 참고 있었다는 걸
나는 몰랐지
그런데 말이야
나도 좀 시간을 줄래?

나 사실은
내 마음도 아프다는 걸

말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하지만 내 마음에게도 미안해
그러니까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에게
아주 잠시만 떨어져 있자고 얘기해 보자
마음에게도 조용히 쓰담쓰담해주자

그 시간이 지나 우리 서로가 생각이 난다면
그때 환하게 웃으면서 파스타 먹으러 가자, 응?

보이지 않는 마음 들여다보기

출근할 때 자주 보는 풍경이 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걷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사람. 어떤 날에는 아버지인 듯, 할머니인 듯, 엄마인 듯 때로는 이모일 수도 있겠지. 고모일 수도. 할아버지일 수도. 아니면 언니일 수도.

딸은 그 유치원에 입학하고 졸업했다. 초·중·고등학교까지 난 일하느라 딸의 일상은 늘 할머니, 할아버지 차지였다. 난 생각했지. “나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건 확실한 정답이었다. 딸은 잘 컸고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엄마 밑에서 안 큰 게 복이라는 우스갯소리를 종종 했다.

딸이 커가면서 나이에 맞는 권장 도서를 읽었다. 딸 아이의 마음이 궁금하기도 했고, 책 속에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 있을 것 같아 위안도 되었다. 딸은 그렇게 나 없이도 잘 컸고, 난 너그러운 엄마처럼 굴었다. 나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좋아했으니까.

나는 시를 쓴다. 시를 쓰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고, 친구 만나는 시간이 더 많고, 잠자는 시간이 더 많다. 시를 쓰면서도 이것이 시가 맞나, 라는 질문할 때

가 많다. 내 몸은 온갖 주눅으로 가득 차 있어 시를 보일 때 긴장된다. 그러나 시가 아니었으면, 살아 있는 것들의 모든 감정에 대해 외면하고 모른 척했을 것이다. 딸 아이가 그냥 잘 커 준 것처럼 말이다.

딸은 청소년기를 버티고 자랐다. 나 대신 이모한테 말했다.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그렇지 않고 서야 오랜 세월 나에 대해 관심이 이렇게나 없고 얘기도 안 한다”고. 난 그저 딸이 대견하고 잘 해내고 있어 말을 아끼고 잘한다, 잘한다만 했는데 딸은 그것이 못내 서운했던 모양이다. 딸의 마음과 내 마음이 겹쳐 보였다. 나도 그랬는데, 나도 엄마 아빠에게 어떤 말이든 화를 내든 싸우든 그렇게 같이 있고 싶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마음과 엄마를 좋아하는 마음은 누가 더 크고 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딸의 이모 그러니까 내 동생에게 들었다.

마음은 하나가 아니다. 딸아이를 통해 용서를 배운다. 삶을 배운다. 청소년기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이해하고 쓰고 있다. 시를 씀으로써 보이지 않던 마음들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한다. 유치원에 엄마 손을 잡고 가고 싶었던 마음이 보이는 것처럼.



유현아

2006년 제15회 <전태일문학상>을 받으며 작품활동 시작. 시집 『아무나 회사원, 그밖에 여러분』 『슬픔은 겨우 손톱만큼의 조각』, 우정시집 『우리는 서로를 펼치고』, 청소년시집 『주눅이 사라지는 방법』, 미술에세이 『여기에 있었지』가 있다. 제4회 <조영관문학창작기금>, 제21회 <아름다운 작가상>을 받았다.

문학매거진 SIMA

2026년 작품 응모안내

〈파란하늘〉에서는 새로운 작법을 시도함으로써 다각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대문학을 수용하고자 〈문학매거진 SIMA〉를 계간지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학매거진 SIMA〉는 시, 시조, 동시, 어른을 위한 동화, 디카시, 디카에세이, 시화,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담아 시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문학매거진 SIMA〉는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시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읽을거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대상 : 문학を 사랑하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등단, 미등단에 상관없이 응모 가능합니다.

■ 응모 기간 :

봄 호 2026년 11월 23일(금)까지 / - 선정 공고 2월 13일(예정)

여름호 2026년 4월 24일(금)까지 / - 선정 공고 5월 15일(예정)

가을호 2026년 7월 24일(금)까지 / - 선정 공고 8월 14일(예정)

겨울호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 - 선정 공고 11월 13일(예정)

결과는 파란하늘 홈페이지(dohun.kr)를 통해 공지합니다.

■ 작품이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책을 보내드립니다.

원고 접수할 때 꼭 주소를 써 주세요.

■ 원고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원고모집 공고를 보고 꼭 공고 내용대로 접수해 주세요)

원하는 분야에 각 1편씩만 접수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은 디카시와 동시만 접수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 : hello@dohun.kr

■ 응모할 수 있는 부문 : 신작시, 시조, 동시, 디카시, 디카에세이,

시화, 캘리그래피, 어른을 위한 동화, 시마SF 스토리

옥수수 먹다가

박 여 범



이가 깨졌다네, 옥수수 먹다가

이를 어쩐다지

드르륵 수리비보다 더 아픈 건

시퍼렇게 멎든 심장이 멈추던, 그날 말이야

수줍게 웃던 네가 떠난 그날이라네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한국디카시인협회 서울중앙지회 정회원, 문화예술창작집발간 수혜(개인 2022), 디카시집 『하여, 숨숨한 디카시에 미치다』 시집 『옥수수수염처럼 얼굴이 붉어진다』 『진달래꽃이 여여如如히 피었습니다』 현재 용북중학교 교감.

오지랴

박해경



좋아서

여기저기

떼어 주고 나니

정작 나는 죽을 판이다

전장

박 화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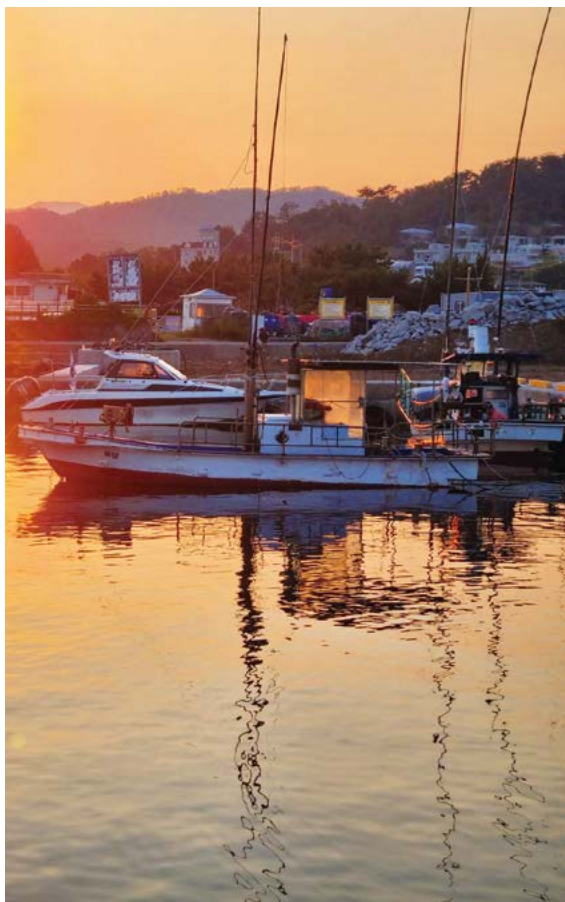
불고 매운 것들과
온몸으로 싸운 뒤
벗어 놓은 전투복

내년 이맘때까지 휴전

p_hwa77@naver.com

조금 모자란 작품

정 사 월



명작하나 남기고 싶은데

물감도 부족하고

감도 떨어진

하류 화가의 늘어진 푸념

2011 <자유문학> 시 부문 신인상 등단. 디카시집 『하늘카페』 『새잎의 함성』, 대경일보 '정사월의 디카시' 연재,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원. 2022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 디카시공모전 수상, 계간 <한국디카시> 편집장. blueeye410@hanmail.net

작별

강 이 현

네가 떠나고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와 구분되지 않는 바깥의 냄새가
시간의 중심을 조금씩 밀어냈다
손을 내민다는 건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잡을 수 있는 형체가 없다는 사실로부터
비로소 손의 감각이 생긴다면
실패가 느낌의 시작이라면
그렇게 착각은 이루어진다
그림자가 움직이는 모습이
마지막 문장일지도 모르기에
종이처럼 얇아진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한다
몸이 먼저 알아차리기 전에
바랜 셔츠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시집 『다른 명찰을 보여주는 관계자』

배꼽의 파문

심 창 섭

온 점 하나
그 동그라미의 중심에서 파문이 일었다
추방이었을까, 탈출이었을까,
알 수 없는 기원을 품은 겹겹의 동그라미
안과 밖이 모호한 삼백예순다섯 날
한 가닥 텃줄을 끌고 원의 둘레를 따라
울음을 덧씌우며 걷는다
‘거칠게 살지 말라, 모나면 정 맞는다’
그 말에 모서리를 숨기고
웅크린 채 세상을 구르며 걷는다
텃줄 끊던 그분의 내력이
손가락 끝으로 이어진 생의 등고선
해독되지 않는 미로는 왜 그리도 혼잡한지
이 길의 끝이 어딘지 몰라
별을 향한 지름길을 몰라
설움 한 바가지 품은 새의 목소리로 울곤 했다
습관적으로 새 달력에 동그란 씨앗을 파종하며
생의 에움길을 비틀거리며 걷는다
언제나 백발백중인 빗방울 같은 삶이고 싶었는데
밑동 잘린 고목의 자서전 앞에서
잠시 아버지의 생을 더듬고
아들의 내일을 떠올려 보다가
삶과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공중의 재발견, 빛의 언어

이 우 디

조금 모자라면 어떠랴
내 모습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일렁이는 파도를 향해 뜻을 올린다
온 점 하나 지상에 남긴 채

누가 보낸 알람인가요

여백이 전부인 새의 지도 보내온 이는

공중을 펼친 새가
길을 잃어본 적 없는 새가, 그리고
덤이란 듯

술에 취한 새의 눈매를 닮은 빛 한 무더기 풀쭉
전생을 오독한 타락 천사가 입양한 허공의 꽃

사라지고야 말 새는 비밀, 나는 비상구 없는 혼돈
의 섬이 된 거죠

알람도 패키지로 보내는지 살팍진 고비의 주름 겹겹
짜깁기 한 하품은 누구의 의견인가요

금지된 포궁에 밀줄 그은 빛은
물구름 버전
누구의 영혼을 먹고 사는지

다큐멘터리 같은 봄날 반반의 표정이 품은 증언들, 아
무튼

새의 진술이 폭설처럼 쏟아지는 거래요

밤 12시의 문장이 공중의 목젖을 넘어옵니다
새벽노을의 무렵

2006 〈한국수필〉, 2025 계간 〈예술가〉 신인상 등단. 에세이집 『달아, 너무
높이 뜨지는 말아라』 외 3권. 〈춘천예술상〉, 〈춘천문학상〉 수상

어떠한 간격

김 시 운

내 안에 불시착한 당신입니다

바람이 창가에 다가와
 너와 나의 차이가 뭐냐 묻는다
 아와 어의 쓰임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ㅏ와 ㅑ를 잘못 바꿔 쓴 다름
 낫 돌려놓고도 모르니
 ㄴ에 ㄹ을 쓸 것을
 ㄴ에 ㅏ를 쓴 것을

너와 나의 차이가 이리 큰 줄을
 아야 아야
 미움을 숨기는 것이 나라고
 늙어가는 나를 위하여
 입술의 거짓을
 우리는 이제부터 나를 너라고 불러 봐야겠다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어둠을 끌어내는 새벽녘
 잠깐만 순간이라도
 풀 위에 내려앉은
 물비린내 나는 이슬방울로 가슴을 닦는다
 간혹 말을 아끼지 말고
 나는 너 너는 나라 부르지 않겠니

2014년 <영주일보> 신춘문예(시조), 2014년 <시조시학>, 2019년 <문학청춘> 시, 2019년 <한국동시조> 등단. 시집 『수식은 잊어요』 시조집 『썩을,』 『강물에 입술 한 잔』 『튤립의 갈피마다 고백이』. 제12회 <시조시학> <젊은시인상>(2018), 제15회 <열린시학상> 시 부문(2023) 수상.

빨간 우체통 앞에서



정가 12,500원

책은 교보문고, 예스24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운 이름, 그리운 시

- 1부 對立대립
- 2부 염소와 풀밭
- 3부 자전거 도둑
- 4부 바보사막
- 5부 화창한 날

죽어서도 살아 있는 그는 현재진행형이다. 그의 육체는 이미 흙이 되었겠다. 양평 소나무숲의 솔새 한 마리 되었겠다. 그가 남긴 몇 권의 시집이 내 곁에 가까이 있다. 그가 남긴 불멸의 몸이다. 생전 그는 변방에 홀로 있었고, 죽음과 함께 놀 줄 아는 순정한 시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유명했다. 아는 이들은 안다. 그가 얼마나 고독하게 시와 더불어 살아왔는지를. 생전 제자도 든든한 우군도 없었지만 그의 시가 금강석 같이 오래 빛날 거라는 것을...

_홍 일 표 시인 「나, 그냥 저 똥에 경배하고 싶어진다」 중에서

세계의 砲彈포탄이 모두 별★이 된다면



그리운 이름, 그리운 시

- 1부 빵
- 2부 작은 평화
- 3부 채플린의 마을
- 4부 종이로 만든 세상

우리 젊은 그 시절, 물도 불도 무언지 모르던 그 시절.
활활 타는 가슴으로 이곳저곳 참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던 시절.
영화의 한 대목처럼 문득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던 시인 이세룡
이제 그의 젊음을 다시 읽을 수 있다니.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그리운 사람이며, 그리운 시절이며

_윤 석 산 시인



정가 13,000원

책은 교보문고, 예스24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감주나무

김 율 채

내토초등학교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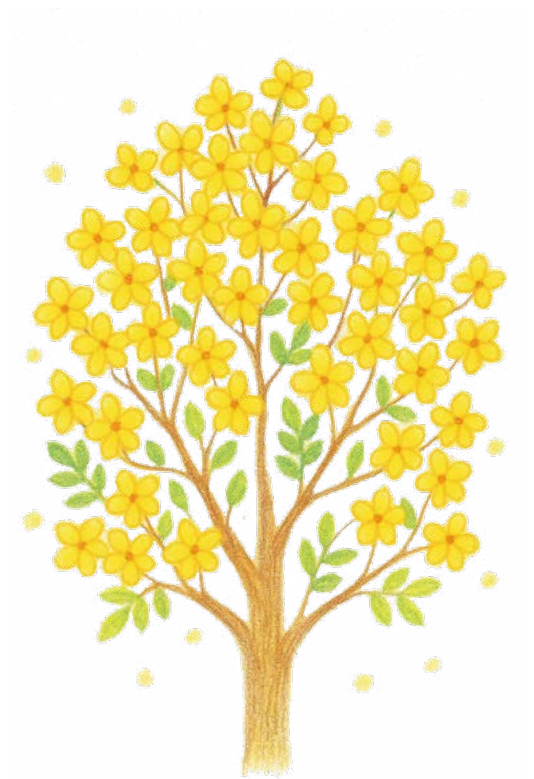
안녕! 모감주나무야
너 꼭 눈 같다
눈 내리는 것 같다
너 어떻게 나무가 된 거야?
난 얼지 못해서
나무가 된 거야

마법의 털실

김 현 경

내토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마법의 털실 진짜 맞아요?
아닌 거 같은데?
신기하다?
까아아악!
신기해요!
엄청 엄청 신기해요!
이걸 손에 끼워요?
손 찢릴 거 같은데?
까아아악! 아파!



청소하는 날

박 다 현

부춘초등학교 1학년

오늘은 쓱쓱쓱
청소하는 날

빗자루, 쓰레받기로
바닥을 청소하고

장난감을 착착
정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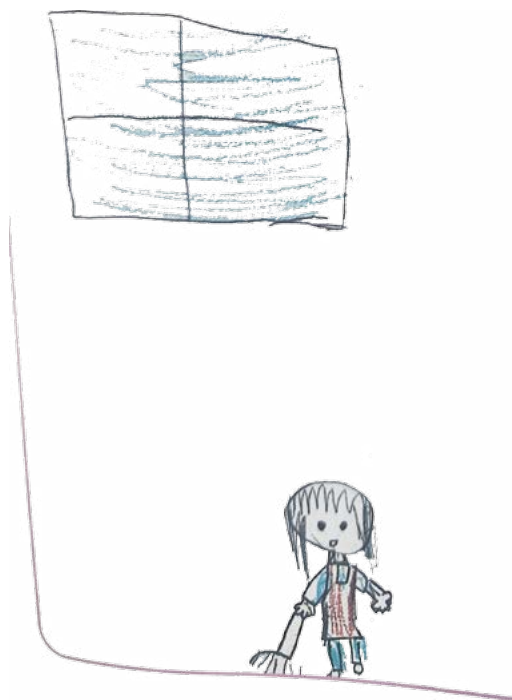
창문을 쓱쓱쓱
닦아 주고
더러운 물건들도 쓱쓱쓱 닦아요

살금살금 도둑고양이

최 예 은

성연초등학교 1학년

밤이 되면 살금살금
그림자가 살금살금
하나씩 훔치고 훔쳐
소리도 안 나
잠이 들었어
살금살금살금살금
조심조심
알고 보면 도둑고양이



설 틈 없이 일하는 시계

문 하 율

서남초등학교 2학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는 나와 친구들
 짜각짜각 벌써 2시간이 지났다.
 이제 헤어졌다.
 집에 갈 때도 시간이 짜각짜각
 집에 와서 씻는데도 짜각짜각
 저녁 먹을 때도 짜각짜각
 공부할 때도 짜각짜각
 시계는 아주 힘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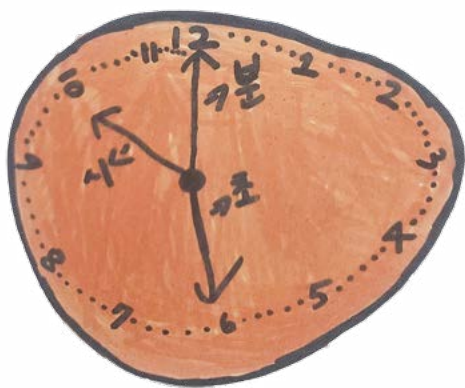
사르르 녹는 사과

우 서 진

반석초등학교 2학년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사과를 입에 넣으면 아삭아삭
 사과를 포크로 콕콕콕
 사과가 사르르 녹는다.

 아삭아삭 할아버지가
 농사하신
 맛있는 사과



개 중에 가장 빠른 개

이 도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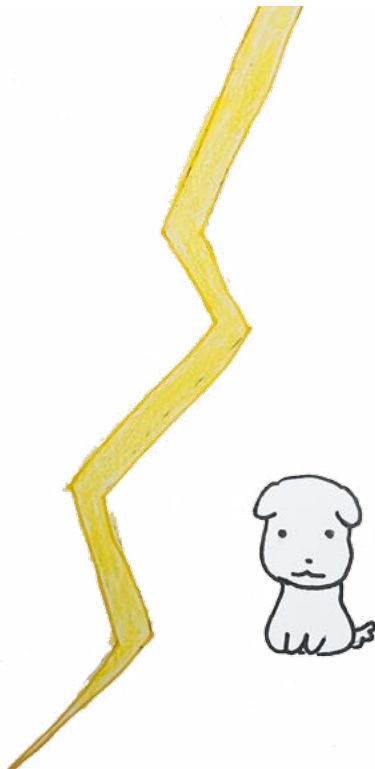
남산초등학교 6학년

하늘에서만 살고 있지

비가 올 때만 오고,
친구인 천둥과 같이 오지.

번쩍번쩍!

하고는 금세 사라져 버리지.



아이들이 동시를
즐거 쓸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1년에 4번

봄, 겨울, 겨울, 겨울

문학매거진 <시마>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http://dohun.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에세이

| 나를 걷게 하는 길

엄진희



종로3가역에서 오른편 서순라길로 들어서면,
종묘 담장을 따라 창덕궁까지 고즈넉한 산책로가 이어진다



늘 걷던 길이 있었다. 정해진 방향, 익숙한 속도, 도시의 리듬 속에 묻혀 걸었다. 시간을 아끼는 법에 익숙했고, 관성에 이끌리듯 일관된 걸음만 걷던 나를 어느 날, 낯선 옆길이 불러 세웠다.

오래된 담장과 가을빛 사이로 세상의 속도가 잠시 멈춘 듯 그 길엔 묘한 고요와 설렘이 함께 있었다. 돌아가는 길이라 여겼지만, 사실은 내 마음 안으로 이어진 길이였다. 익숙한 나를 벗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틈. 그 순간, 보이지 않던 세계를 여는 맞춤 열쇠가 나를 감싸안는 듯했다.

빛이 틈으로 스며들면서 세상은 조금씩 다르게 열리고 있었다.





겨울이 찾아왔다. 눈은 세상의 소음을 덮고, 모든 흔적을 솟눈 위에 새롭게 썼다. 멈춘 듯 적요한 시간 속에서도 내면의 온기는 여전히 흘렀다. 지나온 시간들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멈춤도, 우회도, 모두 길의 일부라고.

산책로의 다리를 건너며, 문득 마음의 경계를 건너는 느낌을 받았다. 얼어붙은 계절 속에서도 삶의 흐름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하얀 빛 아래, 모든 것은 다르게 존재했다. 잠시 멈춘 세계 속에서 나는 비로소 움직이는 나를 마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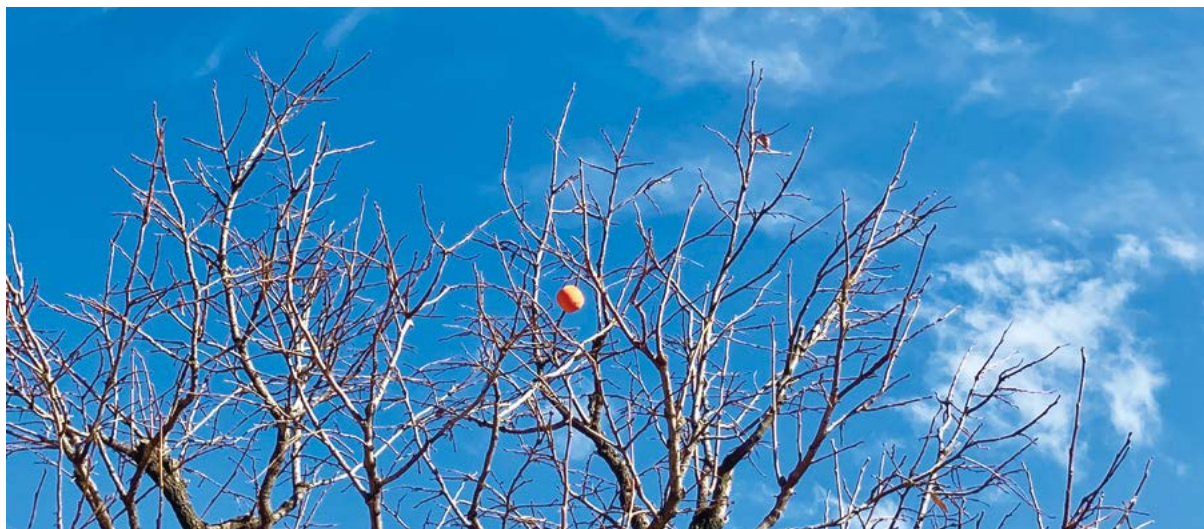
가지 끝에 감 하나가 남아 있었다. 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 있던 것이었다.



익어가는 계절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비우고 채워왔다. 이제 그 안에 남은 것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조용한 사랑이다.

가끔 옆길이 나를 부른다. 그 길 위에서 걸음을 늦춘다. 세상이 만들어 둔 길 밖에서 또 다른 하늘이 열린다.

겨울의 빛이 포근히 내려앉은 그 하늘 아래 붉은 감 하나가 아직 농익어 가고 있었다.



시담★ 시담★ 이창건



| 나의 동시 이야기

눈 내리는 날

눈 오면
눈 온다
소리치고

비 오면
비 온다
소리치던

동생이

눈 내리는 날

엄마, 엄마
소리치며 울었다

닫힌 문

이 세상에

닫힌 문은 없다
언젠가는 열린다
닫힌 문은 열리고 있는 문이다
닫힌 문이라 열리지 않을 거라는
닫힌 마음으로는 결코 열 수 없다
바람도 열고
햇살도 여는 닫힌 문
그 문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닫힌 문 안에 기다리고 있는
희망을 포기하는 것
무지개를 잃어버리는 것
지금 두드려라
두드리는 마음 간절하면
하늘 문도 열린다
닫힌 문도 길이다

하얀 날개를 가진 작고 가벼운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

파드닥거린다

나비는

이 세상에

꽃만

있는 줄 알았다

새싹 문자

비가

내

리

는

날에도

쉬지 않고

일해

나에게 시를 쓰는 힘은 하느님에게서 온다. 내가 시를 쓰는 것은 시마詩魔의 힘을 빌려 쓰는 하느님과의 동업이다. 나는 하느님과 만나 소중한 삶의 비밀을 배웠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

은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으며...라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그 어떤 일에도 감사함이 마땅하고 옳은 도리라는 것도 배웠다. 이 세상 삶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느님이며 나를 일으키게 하시는 분도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모와 치욕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의지도 키웠다. 이슬 한 방울이 풀잎에 맺히고 채송화가 꽃잎을 여는 것도 하느님의 숨결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 것도 알았다. 나는 내 모든 삶의 열쇠가 하느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

내 동시는 원초적 동심과 사유를 바탕으로 세상 깊은 속, 낮은 곳을 지향한다. 내가 동시를 쓰는 것은 세상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함께 울어주는 사랑의 인식이자 스스로 위선의 가면을 벗는 진정성의 고백이다. 참고 참았다가 가슴속 깊이에서 솟구쳐 오르는 눈물로 빚은 자화상이며 작은 것, 약한 것, 안쓰러운 것, 그늘진 곳, 상처받은 영혼들을 애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애달게 나 자신을 반추하는 거울이다.

그 속에는 담대한 사랑의 삶을 도모하려는 종교적 신념도 담는다. 신에게 사랑이 없으면 신도 설 자리를 잃듯이 시도 사랑이 없으면 설 자리를 잃는다.



이창건

1951년 강원 철원에서 태어나 1981년 <한국아동문학>에 「어머니」가 추천되어 등단. 동시집 『풀씨를 위해』 『소년과 연』 『소망』 외 다수. <대한민국문학상> 신인상, <소천아동문학상>, <윤석중문학상> 등 수상.

예일초등학교 교장과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장 역임.

더 큰 꿈을 품은 |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
파란하늘 | 정성껏 책에 담아 드립니다

공감 시선



공감시선 07 _이교상 / 꽃의 문장으로 당신을 중얼거리다
(2021 <아르코문예창작기금> 수혜)

공감시선 08 _김정자 / 시간이 아직도 익지 않은 까닭

공감시선 09 _정대구 / 그대로 멈춰 섰

공감시선 10 _최광모 / 디지털 장의사(2022 <아르코문예창작기금> 수혜)

공감시선 11 _이도훈 / 봄날은 십 분 늦은 무늬를 갖고 있다
(2022 <아르코문예창작기금> 수혜)

공감시선 12 _김영희 / 본문과 추신(강원문화재단 후원 수혜)

공감시선 13 _김영희 / 바람이 노래하는 곳(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금 수혜)

공감시선 14 _정대구 / 1003이와 1004 사이 날개가 있다

공감시선 15 _이상구 / 윤달 화첩

공감시선 16 _황희영 / 고요를 담다

공감시선 17 _윤석산 / 용담 가는 길

공감시선 19 _권지영 / 사랑이 아니었다 해도

공감시선 20 _이창건 / 서정과 감사로 물든 일상

공감시선 21 _이만형 / 꾸리는 가방은 언제나 차고 넘쳐요

서정의 서정



서정의서정 1 / 권달웅 _꿈꾸는 물
(2020 세종도서 선정, 녹색문학상, 목월문학상 수상)

서정의서정 2 / 윤석산 _절개지

서정의서정 3 / 조창환 _나비와 은하

서정의서정 4 / 한광구 _나무길

서정의서정 5 / 이사철 _고니는 삼 일만 예쁘다

서정의서정 6 / 신현정 _빨간 우체통 앞에서

서정의서정 7 / 이세룡 _세계의 포탄砲彈이 모두 별이 된다면

서정의서정 8 / 박만진 _울음의 변천사

문학매거진 SIMA 2026년 작품 응모안내

〈파란하늘〉에서는 새로운 작법을 시도함으로써 다각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대문학을 수용하고자 〈문학매거진 SIMA〉를 계간지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학매거진 SIMA〉는 시, 시조, 동시, 어른을 위한 동화, 디카시, 디카에세이, 시화,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담아 시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문학매거진 SIMA〉는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시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읽을거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대상 : 문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등단, 미등단에 상관없이 응모 가능합니다.

■ 응모 기간 :

봄 호 2026년 11월 23일(금)까지 / - 선정 공고 2월 13일(예정)

여름호 2026년 4월 24일(금)까지 / - 선정 공고 5월 15일(예정)

가을호 2026년 7월 24일(금)까지 / - 선정 공고 8월 14일(예정)

겨울호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 - 선정 공고 11월 13일(예정)

결과는 파란하늘 홈페이지(dohun.kr)를 통해 공지합니다.

■ 작품이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책을 보내드립니다.

원고 접수할 때 꼭 주소를 써 주세요.

■ 원고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원고모집 공고를 보고 꼭 공고 내용대로 접수해 주세요)

원하는 분야에 각 1편씩만 접수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은 디카시와 동시만 접수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 : hello@dohun.kr

■ 응모할 수 있는 부문 : 신작시, 시조, 동시, 디카시, 디카에세이,

시화, 캘리그래피, 어른을 위한 동화, 시마SF 스토리

더 큰 꿈을 품은
파란하늘 |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
정성껏 책에 담아 드립니다

공감시인선 (1~68)



공감디카시 (1~8)



공감하는공간 (에세이, 소설, 1~26)



〈The 한술〉 (반년간지, 1~11)



꿈꾸미 동화, 동시집 및 어린이해양안전동화 등 총 27권



문학, 심리학, 철학, 종교학, IT, AI 분야의 필수 지식



뇌·신경과학과 양자역학으로 본- 의식과 새문학

Consciousness & New Literary Theory

연구 호 지음



저자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의 임상경험에 소설가로서 오랜동안 갈무리 해온 창작경험을 결부하여 하나의 융합 연구로서 “뇌과학과 문학”에 관한 결정판을 저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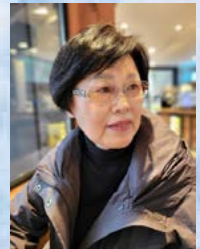
- 문학평론가 김종희

가장 과학적인 이해가 곧 가장 문학적인 이해가 된다.

- 문학평론가 유성호

김영인 시집

늦가을
고구마처럼
웅크리고 있다



한줄기 서로 삼키듯 달린 구근들 / 포근한 흙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 불뿔이 흩어진다 / 내 부모가 그랬듯이 / 줄기가 뿌리 되고 / 뿌리가 줄기 되어 순환하고 있다 / 나는 늦가을 고구마처럼 웅크리고 있다

「구근들」 중에서

하얀 쌀을 씻어 저녁을 안칩니다

이 창 건 시집



이창건의 시집 『하얀 쌀을 씻어 저녁을 안칩니다』는 서정의 세계로 충만하다. 감각적인 언어로 독자에게 심미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감정이 표현의 정수(精髓)를 이루어 감동으로 다가온다. 생활을 형상화할 때도 아포리즘으로 개성이 빛난다.

—박수빈 「서정과 감사가 물든 일상」 중에서

〈문학매거진 SIMA〉 후원 안내

문학매거진 SIMA를 후원하시면 잡지 발간과 청소년 문학사업에 큰 힘이 됩니다.

〈문학매거진 SIMA〉는

엄선된 시인의 작품과 일반 회원의 공모시, 디카시, 디카에세이 등 시 관련 작품과 평론가, 화가, 음악가, 연극인, 소설가, 여행가, 시인의 다양한 에세이를 연재하여 읽는 이에게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 정기구독 : 연(年) 5만 원.
- 후 원 : 연(年) 10만 원.
- 시마계좌 : 농협 302-6722-4621-01 (예금주: 이양훈(본명))

후원금을 매월 나누워 자동이체로 후원하셔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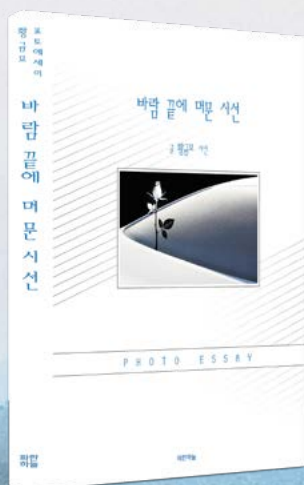
문의 : 02-595-4621 / 010-6722-4621 / flyhun9@naver.com

즐거운 문학놀이에 함께 하세요~.

“잡지가 계속 만들어져야, 문학이 살고, 글 쓰는 사람들이 살고,
그래야 독자도 삽니다.”

바람 끝에 머문 시선

글 황금모 사진



꽃을 매달고 있던 꼭지가 열매를 '단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는'이라는 대목은 눈이 부시도록 환하다.

나는 작가의 삶이 그의 문학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학의 몸을 이루는 언어가 삶을 견인한다. 황금모 수필가가 언어를 찾아 헤매고 언어를 만나 매달리고 언어와 동거하는 그 모든 시간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는다.

- 시인 안도현

P H O T O E S S A Y

삶이 글이 되는 순간

그림 : 소리여행



이윤화 장세현 이수현 김현미
이정오 윤종원 이은정 Sunny Kim
8명의 시인, 소설가, 수필가가 엮은 진솔한 삶의 이야기!

책은 온-오프라인 전국 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보다 더 생생한
제주4·3역사만화

제주4·3평화문학상 당선 작품과 함께하는
Graphic Novel and Poem

4·3 표류기



글_유수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시로 당선했으며
〈경북일보문학대전〉에 소설로 입상했다.
제10회 〈4·3평화문학상〉에 시 「폭포」로
당선했다. 대표저서에 『4·3표류기』, 「선택
받는 글쓰기」, 「태양의 사랑」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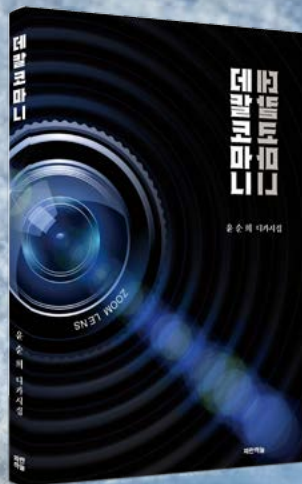


만화_박건웅

대표적으로 『노근리이야기』, 『짐승의 시
간』, 『그해 봄』, 『제시 이야기』가 있다.
2011년 〈오늘의 우리만화상〉, 2014년
〈부친만화대상〉을 수상했다.



윤순희 디카시집



데칼코마니



여러 작품 중 특히 「데칼코마니」는 디카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수작이다. 사진과 문장은 따로일 때 불완전하다. 함께할 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두 날개를 펼쳐 날아오른다. 이 단순하면서도 구현하기 어려운 디카시의 참맛이 시인의 특별한 오감을 통해 모든 작품에 고루 스며 있다.

- 김명빈 시인



박인환 평전



다시 박인환의 계절 !!!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윤석산 지음

개정판, 양장본 284페이지 18,000원

더 큰 꿈을 품은 파란하늘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W109호 / 02-595-4621, 010-6722-4621

홈페이지 : <http://www.dohun.kr> / flyhun9@naver.com / Fax : 050-4227-4621



제5회 시마청소년작품상 · 시마동시상 응모 안내

문학매거진 <SIMA>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제5회 시마청소년작품상 · 시마동시상을 공모합니다.

2026년 문학매거진 <SIMA> 봄, 여름, 가을호에 먼저 응모를 하세요.

선정된 작품들 중에서 본심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 연말에 시상합니다.

(시마동시상은 겨울, 봄, 여름, 가을호)

최우수상 : 기념패, 상장, 상금(50만 원, 1명) / 우수상 : 기념패, 상장, 상금(20만 원, 2~3명)

장려상 : 상장, 상금(상품권 2만 원, 7명) 수상 인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마동시상 : 상장, 상금(10만 원, 5명)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dohun.kr>)를 참고해 주세요.

문학매거진 SIMA 25호, 2025 겨울호

시마초대석 _김광균,
이미지의 시인, 그 고요한 생의 풍경

SIMA SF _전솔이 / 4

시와 사진 _김미희 · 김선하 / 6

조성찬의 여행인문학 / 8

SIMA 겨울 초대시

_김정미 / 12

_변선우 / 15

_정성원 / 18

세계의 시 _오민석 / 22

유성호의 문학톡톡 / 27

제4회 시마청소년작품상 시상식

현장 스케치 / 30

손바닥소설 _전소연 / 38

_이재유 / 40

칼로 새긴 시 _박해람 / 42

정택근의 야생화 / 44

윤성택의 불씨 하나 품고 / 48

법과 이야기 _전형호 / 52

dica詩앗 _송재옥 / 56

靑, 시로 듣다 _유현아 / 60

SIMA 디카시 / 64

SIMA 겨울 신작시 / 68

SIMA 동시 / 72

SIMA 디카에세이 _염진희 / 76

詩담시담 _이창건 / 78

세상에 보내는 러브레터 문학매거진 SIMA

제25호(2025년 겨울호) © 이도훈, 2025

1판1쇄 발행_ 2025년 12월 5일

발행인_ 이도훈 | 편집장_ 오혜정 | 편집부장_ 송연숙 | 편집_려원 | 편집·디자인_이예은

편집위원_ 이준관 박수빈 김이름 양진기 이혜미 김영빈

펴낸곳_ 파란하늘

사무실_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W109호(서초동, 양지원빌딩)

전 화_ 02-595-4621 / 010-6722-4621

이메일_ flyhun9@naver.com | 홈페이지_ www.dohun.kr



파란하늘 출판사 홈페이지
<https://dohun.kr/>

ISSN 2671-7905 | ISBN 979-11-94737-45-2 03810

정가_ 14,000원

이 책의 글에 관한 저작권은 저자와 저자에게 협의, 위임받은 출판사에 있습니다.

저자 허락과 출판사의 동의 없이 글이나 사진의 인용 및 발제를 금합니다.



날다의 트락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nalda2424>

※ 파란하늘의 수익금은 계간지 발간과 청소년을 위한 문학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러브레터



너도 예쁘다

나태주 시 * 유수진 글 * 류승희 만화



1화 순덕이와 태주

— 여덟 살 태주

2화 떡나무와 꿀강아지

— 아홉 살 태주

3화 구참봉네 손녀딸

— 열한 살 태주

4화 연애편지

— 열다섯 살 태주

5화 대숲 아래서

— 선생님이 된 태주

6화 시인의 자전거



만화 B5, 192페이지 16,000원

여기 늙은 한 시인이 있다. 나태주란 이름의 시인이다. 그런데 그 시인의 어린 시절을 동화로 엮고, 그 동화에 기초하여 만화로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만화로 엮은 동화책이라니? 누구는 우스운 일이라 하고 경망한 일이라 핀잔할지도 모른다.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은 준비되었다. 내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젊고 어여쁜 어린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부디 이 책의 의도대로 이 땅의 많은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리움을 배우고 내일의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다. 내일을 살아갈 우리 젊은 세대들을 한없이 축복하고 응원한다.

— 나태주 시인

더 큰 꿈을 품은
파란하늘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W109호 02) 595-4621
flyhun9@naver.com / 홈페이지 : <http://dohun.kr>

雪夜 설야

김 광 군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흘날리느뇨.

처마끝에 호롱불 여위어 가며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 눈이 내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먼곳에 女人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진 追憶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追悔추회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호올로 찬란한 衣裳의상을 하고
흰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내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혜화동 대학로에 있는 시비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